

201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성과공유집

마을은 둥그니까
마음은 둥그니까

마을은 둥그니까
마음은 둥그니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ISBN 979-11-970149-5-6 (PDF)

비매출/무료
15060

마을은 둥그니까
마음은 둥그니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마을기업 마을기업과 함께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필요'의 의미에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해 발굴, 추진하는 것을 마을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을에서 잉태해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제 마을의 미래가 되길 바라는 마을기업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좀 더 따뜻하고 힘 있는 지지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다가가려는 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필요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으로 다가가고자 한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음과 분주했던 발걸음들을 담았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접점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사업 담당부서 일동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이 사회적경제로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돕기 위해 2013년 1월 23일 설립된 민간거버넌스 기관입니다.

2013년 센터 개소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민관협치로 공동정책 생산, 사회적경제의 협동 기반 조성, 자치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 도모,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의 개발 및 보급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민의 삶에 깊게 스며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영역의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시민과의 접점을 높이는 전략을 기획하는 단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와 시민 간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인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고 그 수익은 구성원 및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기업으로,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보다 조금 더 지역에 밀착해 있고, 조금 더 주민이 주도하고, 조금 더 주민의 삶 일부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주체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차원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역사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주도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마을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투르고 미약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정책사업을 연계하거나 금융 인프라·판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예전과는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및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대도시에서 어렵게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센터는 다양한 정책 생산과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사회의 필요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마을기업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성과공유집 <마을은 동그니까 마음은 동그니까>는 센터가 2019년 추진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기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활동 모습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는 책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을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께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가이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9년 한 해 서울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한 모든 분과 특히 서울의 마을기업 대표 및 임직원, 그리고 회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P. 34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컨소시엄

—
친환경 먹을거리로
지역 취약계층의
끼니와 건강을 돌보다



P. 44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컨소시엄

—
안마 시연 및
지압 건강강좌로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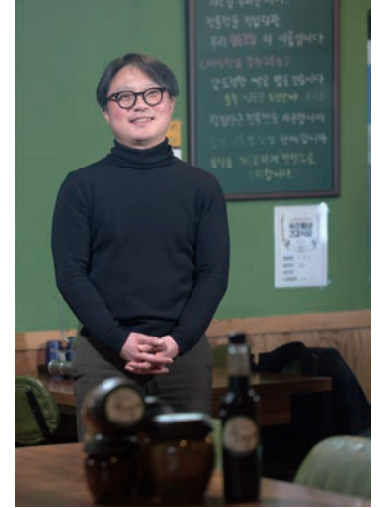
P. 54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컨소시엄

—
여성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 콘텐츠 확보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다

P. 82



다사리협동조합

—
건강하고 안전한 저택식으로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의
모델에 다가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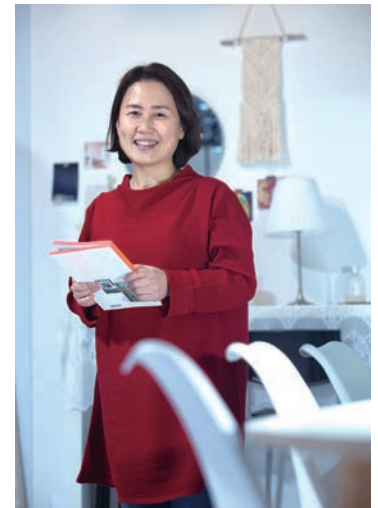
P. 92



꽃망우리협동조합

—
지역 어린이의 건강과
마을기업의 미래를 돌보다

P. 116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
마을 공유주방에서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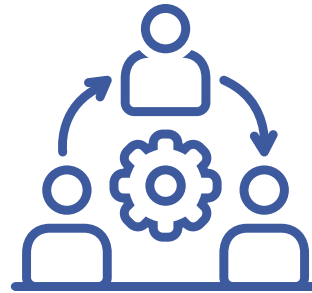


CONTENTS

<u>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u>	012	about	<u>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u>	110	divider
	016	history		112	intro
<u>마을기업 지원사업 소개</u>			114	result	
	020	review & ing	116	#11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A)	
	022	2019 in brief	126	#12 바늘한땀협동조합(A)	
	026	한눈에 보는 마을기업	128	#13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A)	
<u>마을기업 마을기반</u>	028	divider	130	#14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A)	
<u>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u>	030	intro	132	#15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A)	
	032	result	134	#16 주식회사 아임우드(A)	
	034	#01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컨소시엄	136	#17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A)	
	044	#02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컨소시엄	138	#18 중국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A)	
	054	#03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컨소시엄	140	#19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A)	
	064	#04 도시마을협동조합 컨소시엄	142	#20 협동조합 잼터(A)	
	068	#05 목화송이협동조합 컨소시엄	144	#21 바늘한땀협동조합(B)	
	072	#06 모해교육협동조합 컨소시엄	146	#22 목화송이협동조합(B)	
			148	#23 베블리협동조합(B)	
<u>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u>	076	divider	150	#24 주식회사 아임우드(B)	
<u>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u>	078	intro	152	#25 중국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B)	
			154	#26 도시마을협동조합(B)	
<u>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u>	080	result	156	#27 옛고를협동조합(B)	
	082	#07 다사리협동조합			
	092	#08 꽃망우리협동조합	158	에필로그	
	102	#09 아리알찬협동조합			
	106	#10 (주)에덴스푸드			
			부록	160 더 자세한 마을기업 지원사업 소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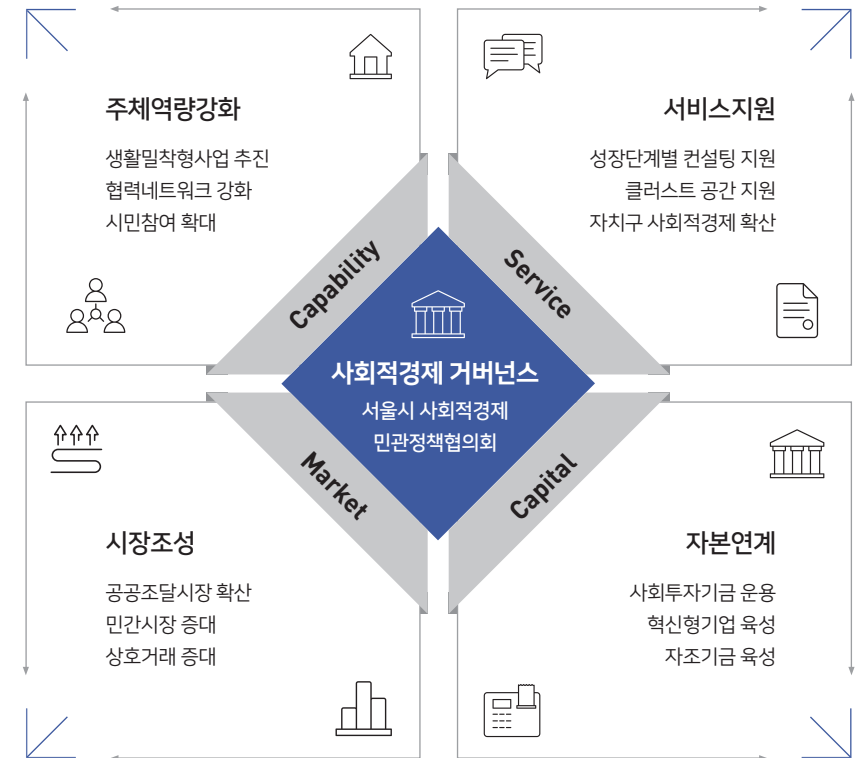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1월, 시민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 지원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자본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이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예비 사회적경제인들과 사회적경제 조직들, 지역·업종·부문 협의체와 중간지원 기관들이 교류,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기반 마련, 성장단계별 지원 및 전략사업을 통한 규모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자립적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업종과 부문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시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 발굴 및 전파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원 전략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시민 생활문제의 혁신적 해결 및 경제민주주의 확장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공유 자원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호혜적 연대와 교량적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공유 자산을 확대하고자 '4개의 기둥'을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탁사무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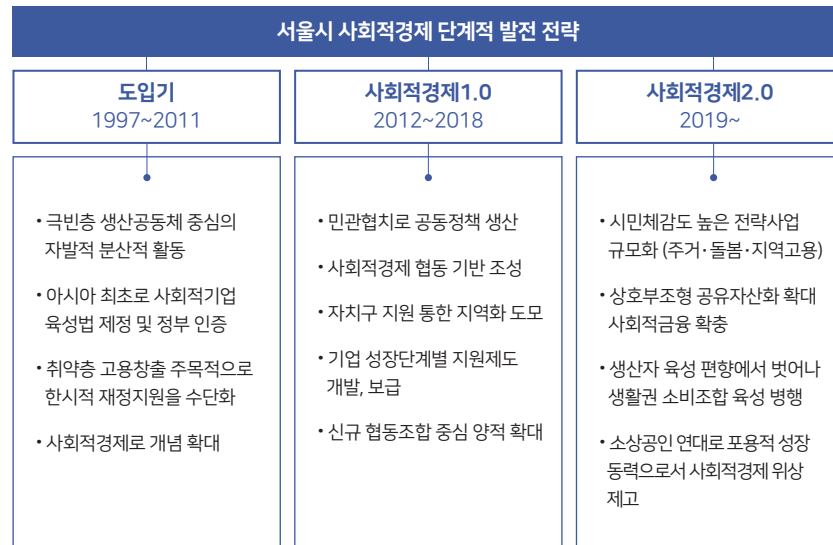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평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허브 조성 운영
-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장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그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직 운영 (5실 6팀 26명)



추진 전략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전략 :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인구가족 구조의 급변으로 인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시민 주도의 순화경제를 확장하고,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공유자산을 확충하여 서울의 포용적 성장 동력 제고



추진 방향

- 시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전략업종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규모화 지원
- 사회적경제의 3주체 '기업 - 윤리적소비자 - 사회적임투자자'의 균형발전 모색
- 중앙정부 및 국회, 국책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한 제도 환경 조성 지속



주요 사업

- 공공시장 확대 및 민간시장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전략사업 기획 및 규모화 지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공동작업장 조성, 관리
-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인재양성(아카데미 운영 및 해외연수)
-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 기획연구



2019년 주요 성과 및 실적

- 공동조달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민간판로 다각화
- 기업의 성장단계 및 필요, 업종 공통과제 등에 기반한 컨설팅 추진
- 외부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지원
- 전략모델 사업화 및 신규 전략사업 개발, 전략사업 추진단 운영
-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기반 조성 및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지원
- 서울시 대표적 민·관 협치 정책기구 '서울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돕고 조직과 조직을 잇는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설립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돕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지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적경제 부문별 조직들과 지원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및 사회투자, 공공구매,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한 기업과 시민 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봅니다.



2013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1월)
- 서울혁신파크 입주 및 개소식(4월)
- 동북4구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Oh!합자존 개최(6월)
- 서울시설공단과 '사회혁신' 상생, 공유 경영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 협약' 체결(7월)
-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세모편지' 창간(8월)
-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11월)
- 2013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11월)
- 서울 사회적경제 지도(SE MAP) 서비스 개시(11월)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개최(5회)

2014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성과공유회(2월)
- '사단법인 선'과 사회적경제 법률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업무협약 체결(4월)
-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 오픈(4월)
-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스쿨 개최(5~6월)
- '혁신파크' 소셜픽션 컨퍼런스 개최(6월)
-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위촉(9월)
- 협동조합 교류회 '의리투합' 개최(5회)
- 소셜채용파티 JOB동산 개최(3회)
- 협동허브 콜로키움 · 희망살롱 개최(8회)
- 서울혁신파크 내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관 운영(2~12월)
- 사회적경제 장터 '광화문 희망장터'(3~11월), '혁신파크 풀장'(10~11월) 개최
- GSEF 창립총회 개최(11월)

2015

- 여성능력개발기관과 여성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3월)
- 창신송인지역 사회적경제 허브 '한다리중개소' 개소(4월)
- 공공조달 콜센터 개설(4월)
-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4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원연수과정 '학교협동조합 기초교육' 실시(8월)
- 사회적경제 장터 '잠실풀장'(8~9월), '신촌풀장'(5~11월) 개최
- 공공구매 지원 정보 포털 SENAVI 오픈(10월)
- 협동허브 콜로키움 · 희망살롱 개최(7회)
- 2015 사회책임조달박람회 개최(10월)
- GSEF 2015 운영위원회 및 국제 세미나 참가(11월)
- 2015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성과공유회(12월)

2016

- SBS 다큐멘터리 '협동조합은 학교다' 방영(1월)
- 사회적경제 트렌드 콘서트 '봉정만리' 개최(4월)
- 2016 서울 국제 핸드메이드페어 참가(6월)
-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7월)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5회)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 개최(8월)
- GSEF 2016 총회 참가(9월, 몬트리올)



2017

-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대화 '밀당 프로젝트' 개최(1월)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성과공유회 개최(2월)
- 세운상가 도시재생지,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 개소(3월)
- 2017 서울 국제핸드메이드페어 특별관 '서울 사회적경제관' 운영(5월, DDP)
- IL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현장탐방 진행(서울 사례)(6월)
- 사회적기업 10주년 공동기획 추진(7월, 한겨레)
- 마포 문화비축기지, 공동작업장 생활기술융합제작소 개소(10월)
- 2017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자치구 및 교육청 등, 10회)
- 해외 전문가 초청 연수 '노동통합·커뮤니티 리질리언스·공정무역'(12월)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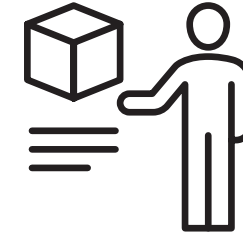
2018

-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대화 개최(2월)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한겨레와 사회적경제 활성화(ㅎㅎ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3월)
-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와 사회적경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3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7월)
- 롯데홈쇼핑-서울시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7월)
-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8~12월)
-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8 총회 참가(10월, 몬트리올)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플랫폼 협동주의' 주창자 트레버 솔츠 초청 강연회 개최(11월)
- 2018 해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스페인 GSD·일본 로코칸 교육·보육 사례(1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내 사회적경제매장 개소(12월)

2019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2월)
- 2019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5개, 고도화 마을기업 1개 선정(행정안전부)(2월)
- 신규 지정 및 고도화 마을기업 대상 설립 후 교육(3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 개최(3월)
- 2019년 예비·재지정·고도화·신유형 마을기업 공모 설명회 및 전문교육 추진(4월)
- 서울시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추진(5월)
- 2019년 서울시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추진(5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좋은예산시민회' 속의 회의 운영(5월)
- 제2회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참여 마을기업 지원(대전광역시)(7월)
- 지역기반 먹거리 기획사업 사업 추진(8월)
- 2019년 센터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성과공유회(10월)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 희망 기업 대상 설명회 및 교육(12월)

서울시 마을기업의 육성 지원부터 정책 개발 활동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마을기업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가장 자발성이 높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5년 8월 말부터 마을기업 육성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며 현장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서울시 마을기업의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현황(2019)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¹ (동시지원) ²	총 개수
95	28(1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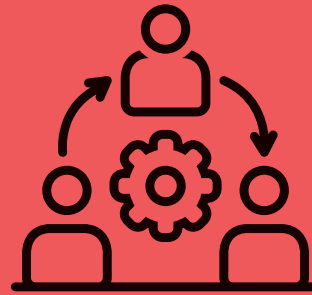
* 1. 서울특별시 마을기업이라 함은 2012~ 2014년에 걸쳐 서울시 공간임대지원사업을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입니다.
2. 동시지원이라 함은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이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이후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도시형 마을기업의 모델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19년의 활동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 전략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주민주도형 마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서울에 적합한 주민기반 마을기업 확산을 위해 시정과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기반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밀착형 코칭 서비스 및 레벨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을기업의 필요에 더 다가간 지원사업 지역주민과 더 가까워진 마을기업



2019년 센터는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과 지역 내 관계망 확장 및 협력 구조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필요와 서울시정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사회적경제 기업, NGO, 복지관,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업 사업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지원사업비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참여 전 전문가와 실무자의 현장진단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를 재설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설립된 기업이 지역의제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과 관계망을 기반으로 기획·개발·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이용 및 구매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설립 지원

1차년도(신규, 6개), 2차년도(재지정, 6개), 3차년도(고도화, 4개),
마을기업 발굴 교육, 선정 지원, 설립 후 지원 수행
예비 마을기업 5개 지정 지원

21 기업

대도시형 마을기업 모델 발굴·성장 지원

-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지원
(6개 기업, 평균 2,500만 원의 사업비 + 컨설팅 지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
(4개 기업, 평균 1,250만 원의 사업비 + 컨설팅 지원)
- 레벨업 지원사업 지원
마을기업별 당면한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역량강화 지원
(10개 기업, 사전경영진단 + 사업비 500~1,000만 원 경영 지원)
온라인 유통 판로 개척 지원(7개 기업, G마켓 입점)

27 기업



298 회
607 명

경영진단 컨설팅

기초상담 및 컨설팅(123회 226명), 레벨업 사전경영진단(10회 10명),
공동기획사업 컨설팅(27회 91명), 전략사업 사전경영진단 및 컨설팅
(6회 6명), 경영지원 컨설팅(40회 118명), 피어멘토링(92회 156명,
외부자원연계 포함) 등

71 회
896 명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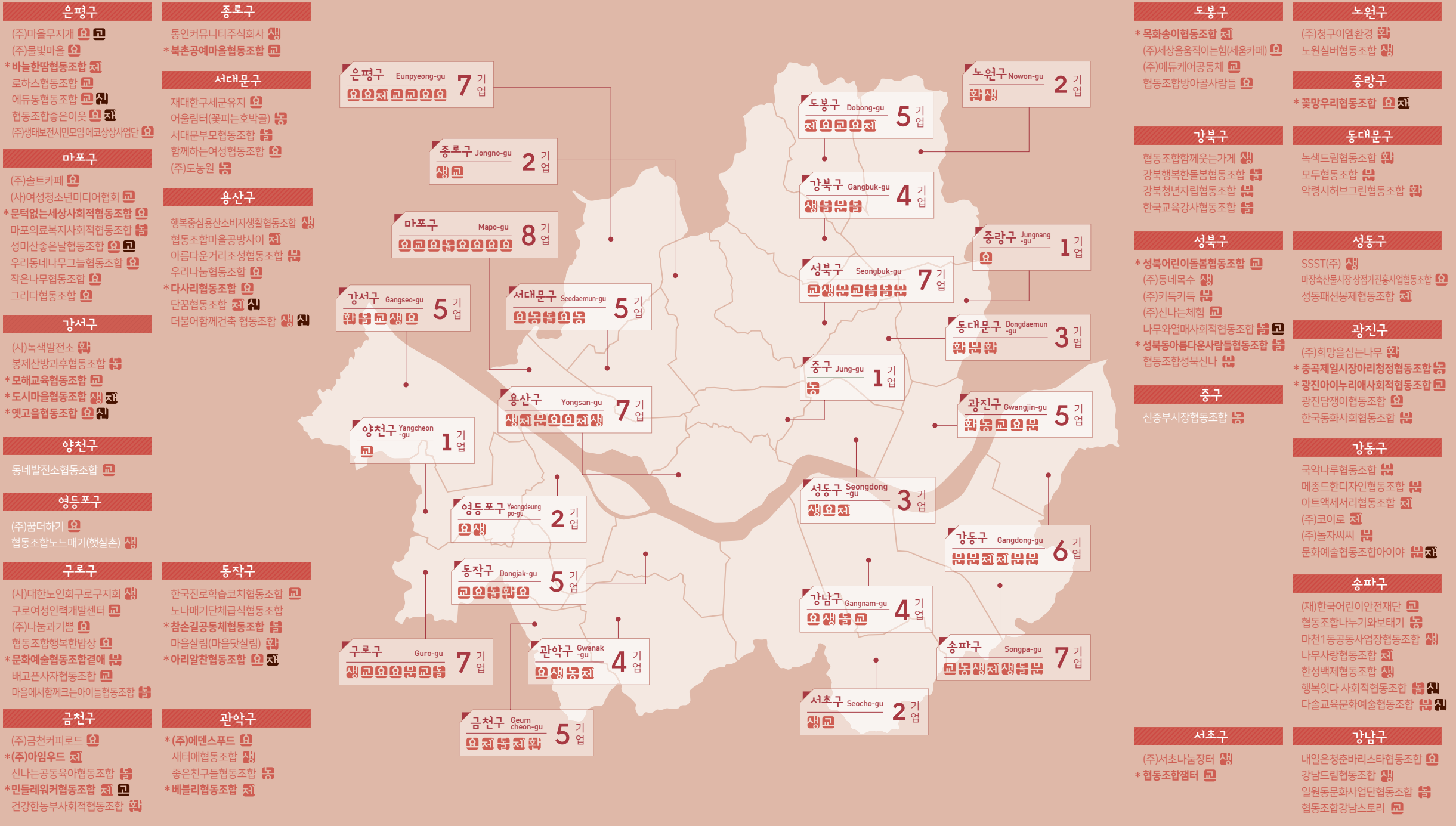
설립 전 교육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회 168명), 2차년
도 전문교육(팀 워크숍)(12회, 64명), 마을기업 설명회(5회 215명),
자립교육으로 직무능력 및 역량강화 교육(52회 449명) 실시
*설립 전 교육, 아카데미, 해외연수 등의 교육 횟수 산출은 전체 과정을 1회로 하고,
인원 산출은 연인원(누적)이 아닌 실 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마을기업 담당인력

조직의 안정성을 책임진 마을기업 담당인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명, 21개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4 명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27개 마을기업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와 마을기업이 기업의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 기업성을 강화하고자 같이 고민하고 협업했습니다.



신진농문화생환경제조요식업
신규 재지정 고도화 교육 농산물 돌봄 문화 생활서비스 환경 제조 요식업

● 컬러는2019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마을기업입니다. * 표시는 2019 마을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입니다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2019년에 수행한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지원사업 소개	30
지원사업 성과	32
참여기업 사례	34

- #01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컨소시엄
- #02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컨소시엄
- #03 만들레워커협동조합 컨소시엄
- #04 도시마을협동조합 컨소시엄
- #05 목화송이협동조합 컨소시엄
- #06 모해교육협동조합 컨소시엄



지역 관계망을 통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로 지역의 지지를 받는 마을기업으로 성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가능한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 아래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망 확충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19년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마을기반형 사업은 골목경제를 염두에 둔 국책사업 및 서울시정과 연결되어 야 하는 바, 센터에서 전략사업으로 개발한 지역돌봄, 혁신학교 및 마을 방과 후학교, 맞벌이자녀 대상 급 · 간식사업 등 지역주민 참여와 관계망 확충을 통해 수요 · 공급 매칭이 유리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마을기업 대상의 공모를 통해 추진 주체를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즉, 지역사회(민 · 관)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마을기업이 지역의 관계망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목표

마을기업 - 지역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모델 수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 사업 개발 및 참여 - 지역 내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관련 사회적경제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상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자립형 /서울형 마을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지원 분야



공통

• 자치구 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 유통 · 공급 프로세스구축 등의 협업화 모델

기획주제 1 : 정책연계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 서울시 돌봄SOS센터 「(가칭)우리동네 나눔반장」 연계 커뮤니티케어 사업

기획주제 2 : 지역돌봄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 혁신교육 및 마을 방과후학교, 맞벌이자녀 대상 급 · 간식사업 등

자유주제 : 마을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 특정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마을기반형 전략사업 디자인 및 수행

지원 내용

사업비

평균 **25,000,000**원 지원

정책연계 전략사업(지역돌봄) **3**개 기업

지역돌봄 사업모델 **2**개 기업

마을기반형 전략사업(자유주제) **1**개 기업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및
협업 관련 분야 교육 등

참여 기업

자치구	마을기업명	사업내용	업종	조직형태	대표자
마포구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마포형 일상편의 돌봄서비스 개발 및 추진	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엄건용
동작구	참손길공동체 협동조합	건강교육, 안마시연, 방문안마, 치매안심거점 발굴 및 지원, 안마아카데미	제조업	협동조합	이정연
금천구	민들레워커 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 의료 재봉 교육,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제조업	주식회사	김혜숙
강서구	도시마을협동조합	돌봄SOS센터 사업과 연계한 인지와 신체능력강화 지원 통합 마을 서비스 개발 사업 '도라보니'(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을 돌아본다)	제조업	협동조합	노정은
도봉구	목화송이협동조합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사업 연계돌봄콘텐츠 개발 - 어르신 돌봄교육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서비스	협동조합	한경아
강서구	모해교육협동조합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모델 시범사업, 건강간식 메뉴 개발, 커뮤니티 매핑안내서	교육 컨설팅	사회적 협동조합	최정희

지역별 확산 가능한 마을기반 사업의 규모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책사업 및 서울시정과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역주민 참여와 관계망 확충을 통한 사업기획 및 실행 가능한 컨소시엄 선정을 지원했습니다.

기획주제

01

정책연계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커뮤니티케어)

- 마을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및 브랜드 구성(도봉, 목화송이협동조합)
- 기 구성된 네트워크의 확장 및 공동 콘텐츠 개발, 지역 복지관에 서비스 제공(강서, 도시마을협동조합)
- 지역 내 돌봄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먹거리 부문(회복식-죽) 핵심 공급 기업으로 발돋움 (마포,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기획주제

02

지역돌봄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혁신교육지구, 노인돌봄)

- 마을기업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함. 지역 내 어르신(특히 치매, 경증치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 및 안마시언 프로그램 운영을 계기로 거주지 내에만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사회 밖으로 나오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 및 돌봄 대상을 확인(동작,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를 학교 및 복지관으로부터 발굴하여, 지역 복지관 내 유희시설 및 급식시설을 활용하여 돌봄 시범운영 및 향후 돌봄 확장을 위한 매뉴얼 개발(강서, 모해교육협동조합)

자유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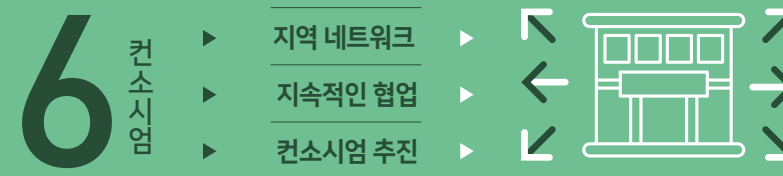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마을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 지역 내 여성 일자리 문제를 지역 특성인 봉제업에 종사한 여성 재교육화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인 의류업 진출과 연계하여 마을기업의 사업 확장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사회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 사회적경제조직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류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여 제조기반 마을기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금천, 만들레워커협동조합)

Result

6개 컨소시엄 선정

마을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지역 네트워크 활용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돈독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업의 발판 마련을 위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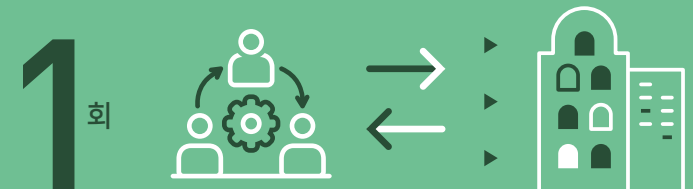
컨소시엄별 2~3회 컨설팅 & 1~2회 워크숍 진행

지원사업 전 사전진단 및 선정 후 공동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 사업 컨설팅을 수행하여 지원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중간 성과공유회와 결과보고회(지원사업 통합) 각 1회

성과공유회와 결과보고회를 통해 각 기업의 사례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01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컨소시엄

친환경 먹을거리로
지역 취약계층의
끼니와 건강을 돌보다

사업명 _ 마포형 일상편의 돌봄서비스 개발 및 추진

목표 _ 마포 지역 돌봄사업 중 '영양 지원' 사업에 적합한 '죽' 사업 모델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조화

#돌봄
#문턱없는 밥집
#우리동네 나눔반장

#01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이하 '문턱없는세상')은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2007년부터 '돌봄'을 화두로 삼았다. '값비싼 친환경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을 가난한 사람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문을 연 '문턱없는 밥집'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먹을거리를 나눔으로써 이들의 한 끼와 건강을 돌보았으며, 친환경 먹을거리 구입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한편 농약과 화학비료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기여해왔다. 또 초창기부터 다음 세대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그릇운동'을 일상화함으로써 환경을 돌보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여기에 2019년에는 새로운 돌봄사업 하나가 추가되었다. 마포구가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일상편의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린 '우리동네 나눔반장' 공동생산 사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 먹을거리를 매개로 한 돌봄을 맡은 문턱없는세상은 이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했다.



○ 형편에 상관없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프랑스에는 한 유명 코미디언이 운영하는 '가슴식당'이 있다. 이곳은 하루 한 끼 정도는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들에게 문을 열어둔다. 또 독일에는 같은 취지의 나눔형 카페 '경계 없는 식당'이 있다. 문턱없는세상이 운영하는 '문턱없는 밥집'은 독일의 '경계 없는 식당'에서 착안해 2007년 5월 문을 열었다. 출범 당시에는 민족의학연구원이라는 재단 소속의 사회적 기업이었으나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문턱없는세상은 2007년 출범 당시부터 먹거리를 통한 돌봄을 화두로 삼았다.



“문턱없는 밥집을 통해 도시의 서민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형편에 상관없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어요. 정해놓은 가격과 상관없이 여력이 되는 이들은 더 내도 되고, 별이가 적은 이들은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고도 한 끼를 든든히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나눔활동이 주된 사업이죠.”

문턱없는 밥집을 통해 찾아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나눔활동을 해왔다면, 지역의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도 병행해왔다. 지역 내 독거어르신이나 치매어르신, 고시원에 사는 1인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단체들,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나눔해왔다.



음식에 들어가는 주재료는 물론 양념 하나하나까지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고집해온 조합답게 환경에 대한 돌봄에도 각별한 마음을 쏟아왔다.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농가에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식재료를 꾸준히 재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물론 농약과 화학비료로부터 우리 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실천해온 '빈그릇운동'도 문턱없는세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다음 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운동을 지속해왔어요. 단지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만 빈그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버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나눔과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판로를 지원하는 일 그리고 환경을 위한 빈그릇운동 등이 문턱없는세상의 주요 사업이었던 것. 2019년에는 여기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한 좀 더 폭넓은 돌봄활동이 추가되었는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이 원활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 돌봄서비스를 위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서울시가 2019년 5개 구에 걸쳐 시범운영한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동행과 같은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까지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 창구다. 그중 '우리동네 나눔반장'은 돌봄SOS센터의 세부 추진사항 중 하나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병원방문 동행, 도시락 배달, 형광등 교체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마포구는 일상편의 돌봄서비스 공급 모델로 '마포형 돌봄 공동생산 사업단'을 구축했다. 문턱없는세상도 그중 하나의 단체로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특징을 살려 돌봄SOS센터 사업에서 먹거리를 통한 나눔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 그대로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을 돌봄서비스 모델로 삼은 기업도 있어요. 저희 마을기업은 후자에 속했는데요.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되 주요 돌봄 대상자가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르신이나 장애인인 만큼 먹기 좋고 소화가 쉬우며 영양까지 균형 있게 담은 죽을 도시락으로 배달하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죽을 개발하는 것부터 배달까지 적잖은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발생해 재정이 빠듯한 마을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적잖았죠."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문턱없는세상은 돌봄서비스를 위한 신규제품을 개발했다.

고영란 상임이사는 해결 방법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에서 찾았다. 문턱없는세상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이 사업의 '사업비를 통해 마을기업이 자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맞아떨어졌던 것. 문턱없는세상은 사업의 미션대로 조합이 주축이 되어 '마포형 돌봄 공동생산 사업단'에서 네트워킹 해온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함께하는행복한돌봄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문턱없는세상이 신규 상품 및 서비스로 죽 개발에 매진했다면,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협력 지원을 맡았으며, (사)함께하는행복한돌봄은 구청과 주민센터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신청한 의뢰자들을 문턱없는세상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북돋았다.



새로 개발한 건강죽 또한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돌봄활동과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위한 토대 마련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에 선정된 후 문턱없는세상은 일상편의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신규 상품인 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가지 종류의 죽을 목표로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문턱없는 밥집의 모든 메뉴가 그렇듯 ‘고급요리사가 개발한 요리가 아니라 엄마가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듯 정성껏 차려서 내놓는 음식’이라는 콘셉트는 이번 죽 개발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었어요. 죽과 관련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기 위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을 뿐, 죽 역시 문턱없는 밥상 주방에서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한 5종의 죽은 채소죽, 녹두죽, 소고기표고버섯죽, 새우브로콜리죽, 호박죽 등. 심재훈 이사는 이전에 없던 신 메뉴로 죽을 개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지만, 3번의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에 참고할 만한 값진 조언을 얻었다고 말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선을 넓혀 일반인들에게도 저희가 개발한 건강죽이 충분한 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컨설팅을 받았어요. 간편식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 꼭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싶은 이들에게도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이용한 죽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죽을 개발하면서 신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해보던 저희에게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으로 정착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동력으로 작용하기까지는 다소 모험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문턱없는세상의 재정적 여력으로는 적잖은 부담을 동반해야 하는 일. 분명한 건 마을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수익 사업이 절실했던 차에 건강죽 사업 모델화를 통해 가능성의 회로 하나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이다.

문턱없는세상이 개발한 죽은 현재 도시락 형태로 일주일에 3번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에게 배달되고 있다. 여기에도 마을기업 공동기획사업의 지원이 스며들었는데, 배달에 필요한 단기아르바이트 고용과 도시락 용기 구입에도 사업비가 유용하게 쓰였다.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인건비를 다행히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도시락 용기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일절 쓰지 않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산화 생분해되는 도시락 용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요. 배달한 후에는 반드시 수거해 소독한 다음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턱없는세상은 이렇듯 환경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먹거리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죽 도시락을 시작으로 앞으로 먹거리 운동이 점차 확산되길 바라는 한편 문턱없는 밥집이 여력이 되는 사람이나 별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이들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을 지탱시켜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키려는 마을기업의 노력과 함께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을 통한 공적자금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 인건비 부담이 적잖은 만큼 사업비를 필요한 곳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턱없는세상의 건강죽은 돌봄서비스 수혜자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은 ○

2018년 서교동에서 지금의 성미산마을로 옮겨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만든 음식을 내는 '문턱없는 밥집'을 운영한다. 여느 식당과 달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밥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여력이 되는 사람은 더 내도 된다. 공덕동 소재 50평 건물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57 B101호 | 전화: 02-324-4190

Result

#01.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컨소시엄

01

건강죽 5종 개발

5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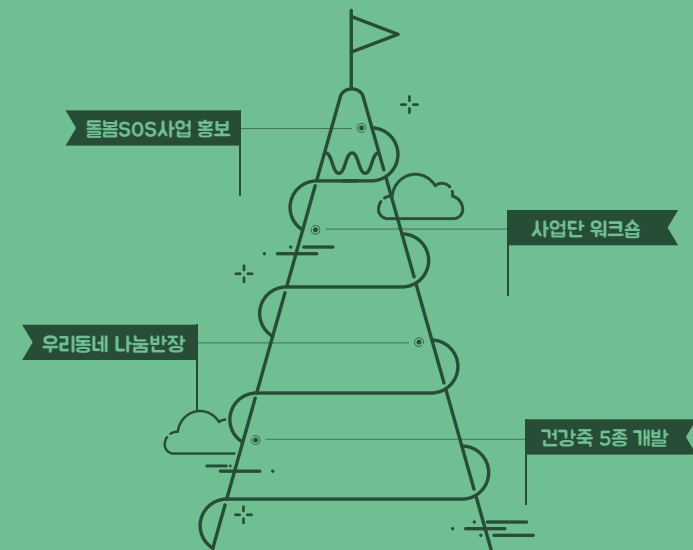
정량

문턱없는세상은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돌봄서비스에 제공할 신규 메뉴로 건강죽 5종을 개발했다. 채소죽, 녹두죽, 소고기표고버섯죽, 새우브로콜리죽, 호박죽 이 그것. 모두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로 식감은 부드럽고 소화는 잘되면서 균형 있는 영양을 담았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워크숍, 돌봄SOS사업 홍보 등 이루고자 했던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

사업 목표치 100% 달성

02

100% 달성



정성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은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시범자치구인 마포구에 소재한 마을기업으로, 마포구의 일상편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서비스를 담당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상편의서비스 중 식사지원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으로 식사지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연하식을 개발했다. 또한 마포 사회적경제 돌봄공동생산사업단에 참여,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마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02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컨소시엄

안마 시연 및
지압 건강강좌로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 확대

사업명 _ 마을 어르신 건강 돌봄

목표 _ 지역 어르신 건강 돌봄과 시각장애인 고용 안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치매 공동 돌봄

#02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컨소시엄



시력을 잃으면 노동력의 80%를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중도 시각장애인들 중 적잖은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하 '참손길')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중도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협동조합이다. 본점인 사당점을 비롯한 직영점 2곳과 가맹점 6곳 등 총 8군데에서 참손길지압힐링센터를 운영 중인 참손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마을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 지점의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펼쳐왔다. 이번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은 그간 참손길이 걸어온 길의 연장선에서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활동영역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다. 즉 지역 어르신들 대상의 지압 강의 및 안마 시연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치매 공동 돌봄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복돋는 계기로 활용했다.

○ 시각장애인들 스스로 만든 일자리

참손길은 2013년 중도 시각장애인 10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의기투합으로 결성되었다.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이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취업할 데를 찾지 못한 게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지만, 건강과 힐링을 통해 안마원에 대한 불건전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바람도 포함되었다.



건강과 힐링을 통해 안마원에 대한 불건전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초창기에 비하면 규모나 매출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시장점유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1인당 400만 원씩 출자해 초기자본 4,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당시 서울시의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1억 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받은 데 이어 1차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협동조합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죠.”

덕분에 본점인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사당점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직영점인 선릉점을 오픈했으며, 이후 수원점, 청주점, 인덕원점, 합정점, 마곡점, 가산점 등 6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어 전국에 총 8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그사이 조합원도 꾸준히 늘어나 현재 30명이 소속되어 있다.

“초창기에 비하면 규모나 매출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사마사지업소가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전문성을 키워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마을기업으로서 그동안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해오던 안마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용 안정화를 꾀할 계기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이청연 대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이 참손길의 이런 니즈에 더할 나위 없는 지원사업이 되어주었다고 말한다.

○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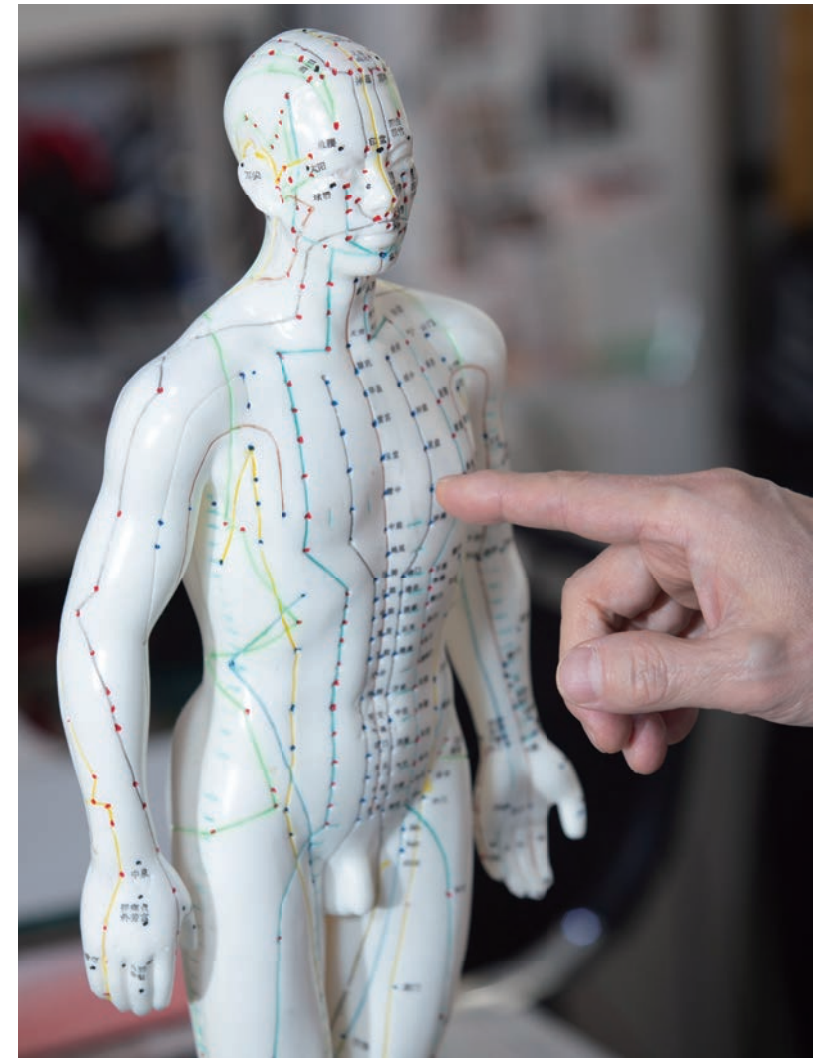
“2018년에 마을기업끼리 협업하는 형태의 기획사업을 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죠.”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인 이번 지원사업은 참손길을 중심으로 동작구 사회적협동조합인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되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뜻을 모은 만큼 각각의 역할이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했다. 먼저 사업을 주도한 참손길이 지압 강의 및 안마 시연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면 동작구 지역 화폐를 발행해온 마을발전소는 그간 넓혀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치매안심거점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지역 공동 돌봄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동작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방문 안마와 지압 건강강좌 등 참손길의 건강 프로그램을 동작 50+와 복지센터 등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각 기관의 역할에서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가 드러나는데요. 우선은 지역 마을기업 간 유대 강화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었고요. 이로써 시각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방문 안마의 활성화 및 지압 건강강좌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압강의는 참여한 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지압강의에서는 지압과 안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우리 인체의 주요 경혈 파악 및 증상별 지압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통한 지역민 건강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는 세부적으로 실시한 사업 내용에서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참손길은 총 5가지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중 ‘건강 교육 및 안마 시연’은 참손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참손길의 건강 교육과 안마 시연을 마을 어르신 건강 돌봄 활동에 추가함으로써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고 시각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안마를 통한 지역 공동체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건강 교육에 450명, 안마 시연에 20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지압과 안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우리 인체의 주요 경혈을 파악하고 증상별 지압법을 강의했어요. 안마 시연을 통해 안마에 대한 선입견을 씻고 직접 효능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를 통해 자기지압법 강좌는 어르신용 건강강좌 과목으로, 안마 시연회는 지역 공동체의 어르신 공동 돌봄 모델로서 향후 지역단체와 협동으로 정례화를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역 건강 돌봄과 시각장애인 고용 안정을 동시에

총 250명에게 실시한 '방문 안마 서비스'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안마를 실시함으로써 통증 치유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방문의료팀' 방식의 환자 중심 진료사업에서 착안한 것으로 안마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기회로 삼았다. 이를 통해 자기지압법 중심의 건강 증진법 안내와 방문안마 서비스를 묶어 '어르신 맞춤형 건강 패키지'로 개발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마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또 다른 사업인 '치매안심거점'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작구 사당동지역에 시행되었던 '치매안심거점'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자발성에 기반한 치매안심거점 지원 및 지역 활동가 역량 향상에 집중해 안심거점 20곳과 20명의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성과를 냈다. "동작구는 치매안심마을 1호(사당1동)를 시행한 자치구일 정도로 치매 관련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나 가족 내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죠.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안심거점을 '기억가게'라는 친근한 이름의 현판으로 바꾸는 한편 거점을 늘리면서 치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한 참손길의 목표는 지역 어르신 건강돌봄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 안정이었다.



기존의 치매안심거점 대신 '기억가게'라는 친근한 이름의 현판으로 바꾸는 사업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참손길은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안마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금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향상된 안마 기술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가 참손길지압힐링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은 마을 어르신 공동 돌봄 필요성의 대두와 더불어 자치구 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에 자기지압강좌와 (방문) 안마 시연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단체와 더 많은 사업을 협업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구청, 보건소, 4곳의 복지관, 동작 50+, 신협, 조합협의체 등 지역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안마를 통한 사회공헌 모델화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지역 내 마을기업과 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사전활동도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동기획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홍보 부족과 사업 초기에 활동계획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다음 사업 진행 시 염두에 두고 개선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의 취지대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건강 돌봄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전문성을 키워 새로운 사업 모델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은 참손길은 앞으로 좀 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안마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 안정은 물론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꿈꾸고 있다.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은

2013년 중도 시각장애인 조합원 10명으로 시작해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주로 중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와 침술교육을 진행하며, 현재 본점인 사당점을 비롯해 전국에 8개의 참손길지압힐링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71 태농빌딩 3층(사당점) | 전화: 070-5055-1887



#02.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컨소시엄

01

건강 교육 450명 안마 시연 200명



정량

참손길은 건강 증진 공동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지압강좌와 안마 시연 서비스를 펼쳤다. 강좌를 통한 교육에는 총 450명, 안마 시연에는 200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안마 서비스를 시행해 총 250명이 평소 갖고 있던 통증의 치유 및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 지역 내 치매안심거점을 20곳 늘렸으며, 치매안심거점에 '기억가게'라는 친근한 이름의 현판을 걸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의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다.

02

방문 안마 서비스 250명



03

치매안심거점 20곳



정성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구의 마을기업으로, 이번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고용 안정화와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개발·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동작구의 주요 의제인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을 중심으로 치매안심거점 개발, 치매예방교육, 안마를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치매예방)을 진행하여 어르신 건강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치매노인의 돌봄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보고자 했다.

#03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컨소시엄

여성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 콘텐츠 확보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다

사업명 _ 손끝에서 피어나는 손꽃세상

목표 _ '지역자원(휴먼웨어)', '트렌드 반영한 봉제 재교육과 공동기획 브랜드제품(소프트웨어)'을 지역사회기반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과 협력으로 기술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갖고 뉴비즈니스 창출을 기대

#솜씨공방
#원예공방

#03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컨소시엄

올해로 마을기업 7년차에 접어든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이하 '민들레워커')은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수공예품 제작 중심의 솜씨공방과 식물을 소재로 에코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둔 원예공방을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은 민들레워커는 마을기업으로서 착실한 성장을 도모해왔다. 다만 민들레워커의 생산품들은 생활필수품이 아닌데다 값싼 중국산 제품들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보니 재화의 순환 측면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갈수록 커지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니즈와 맞물려 새로운 사업 콘텐츠 마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마침 김혜숙 대표의 머릿속에는 3, 4년 전부터 구상해온 새로운 사업 콘텐츠가 있었지만, 겨우 밑그림만 그려놓은 사업의 윤곽을 선명하게 할 여러 제반여건을 실행할 자금력이 문제였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은 때를 알고 내리는 비처럼, 민들레워커가 가만히 품고만 있던 새로운 사업이라는 홀씨의 움을 틔워주었다.





민들레워커는 마을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문제(여성 일자리)와 마을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의류브랜드)의 결합을 시도했다.

○ 환경단체에서 시작해 마을기업으로

민들레워커는 빌딩이 아닌 마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키가 낮은 주택들 사이로 세탁소와 슈퍼마켓, 작은 교회와 문방구 등이 서로 어깨를 견고 이어지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민들레워커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걷다보면 나오는 닭, 꽃, 나무 등이 그려진 담벼락 한쪽에 명패 대신 작은 간판을 달았다.

“이 마을과의 인연은 환경개선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해오던 서울시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숲지기, 강지기’를 통해 맺어졌어요. 2011년, 환경 모니터링 작업 중 30~40년 동안 쓰레기가 축적된 지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시흥5동이었죠. 그때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숲지기, 강지기’가 나서서 손보게 되었습니다.”

‘암탉 우는 마을(암탉이 울어야 마을이 산다는 의미)’이라는 이름을 정한 다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며 무려 4톤의 쓰레기를 걷어냈고, 그 덕에 생겨난 자리는 공동 텃밭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여기에 곰팡이가 슬거나 낡은 벽을 단장하는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낙후된 환경에 쓰레기 더미로 악취마저 심했던 마을의 풍경과 공기의 결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했다.

마을 환경 살리기를 출발점 삼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무려 4개월간 이어진 ‘마을을 짓다’는 마을 할머니들이 이불호청이나 치마저고리 등의 천을 이용해 바느질로 마을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의 폭이 넓어졌고, 자연스레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은 바로 이런 마을들이 모여 2013년 설립되었다. 마을의 문제를 다른 곳이 아닌 마을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의 환경과 의식을 바꾸었고, 한 발 더 나아가 마을기업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일예까지 힘을 모으게 된 것이다.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위한 과제

민들레워커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다. 솜씨공방과 원예공방이 그것. 솜씨공방에서 수공예품 생산 및 판매, 기념품 주문기획 및 판매, 생리대 만들기와 같은 체험교육을 진행한다며, 원예공방에서는 관엽식물 모아심기, 바위정원 같은 손바닥정원 만들기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력단절 여성들과 할머니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소소하더라도 일자리를 통해 대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바느질 솜씨를 활용해 솜씨공방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원예공방은 환경단체 활동으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양로원이나 보육원에 나무를 심거나 실내정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마을에서 시작해 마을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돋보이는 민들레워커는 솜씨공방과 원예공방이라는 사업 콘텐츠까지 보유하고 있어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만 본다면 제대로 갖춘 셈이다. 다만 사업성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솜씨공방의 생산품인 수공예품의 경우 생활필수품이 아닌데다 값싼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재화의 순환 측면에서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고민이 누구보다 깊었던 김혜숙 대표는 3, 4년 전부터 나름대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민들레워커의 조합원 대부분은 현재 IT산업이 들어서기 전에 자리했던 1차 의류산업 종사자들로 한때 미싱 좀 밟아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봉제 기술을 바탕으로 재교육을 실시해 완성품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면 조합원들에게는 일자리가, 민들레워커에는 새로운 사업 콘텐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신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까지는 만만찮은 과정이 남아있었다. 우선 조합원들이 보유한 재능은 1차 의류산업에서 필요로 했던 단순 봉제 기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마저도 소매면 소매, 암홀이면 암홀 등 부분적 봉제 작업에 숙련되었을 뿐, 의류 완성품 제작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 다행히 이러한 교육 전반을 맡아줄 강사는 확보했지만 문제는 재교육 진행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었다. 때마침 공고가 올라온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은 자칫 움도 틈워보지 못한 채 시들 뻔 했던 민들레워커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에 단비가 되어주었다.



마을에서 시작해 마을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돋보이는 민들레워커.

○ 경험을 재능으로, 아이디어를 브랜드로

김 대표의 머릿속에서만 머물던 새로운 사업 콘텐츠는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이라는 든든한 서포터즈를 만나면서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었다. 즉, 지역밀착형 제조사업으로서 재단부터 완성봉제까지 질적인 향상을 꾀한 브랜딩 제품을 개발해 홍보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보로 지속가능한 사업 콘텐츠로 정착시키는 한편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민들레워커의 당면과제 해결은 물론이고 나아가 서울형 마을기업의 모델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컨소시엄 방식을 적용한 마을기업 공동기획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들레워커 역시 지역 네트워크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내 홍보마케팅 분야 사회적기업인 (주)네오누리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내부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던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이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어드바이스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한 민들레워커의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의 추진일정은 수요조사 모집, 디자인 기획개발, 봉제교육 숙련 훈련, 브랜드 상품로고 개발, 샘플 제작, 판매전략 홍보마케팅, 품평회 런웨이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혜숙 대표의 머릿속에만 있던 신사업은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을 만나면서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소비자들을 만날 채비를 마친 '본연' 브랜드는 쇼핑몰 '민들레씨씨(3cici.com)'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JOP DREAM SELL JOY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크게 ‘jop하다’, ‘dream니다’, ‘joy다’, ‘sell하다’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첫 단계인 ‘jop하다’에서는 봉제 경력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류봉제 재교육을 했습니다. 재단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하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의류제작을 담당할 4명과 관리자 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어진 ‘dream니다’에서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완성품 제작이 가능하도록 숙련화과정인 이루어졌고, ‘joy다’ 단계에서는 디자인 개발과 샘플, 상품 브랜드 개발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해 자연, 건강, 편안함 등을 내세운 친환경적이고 아토피 해소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워커의 의류브랜드 ‘본연’과 이 브랜드를 맨 처음 세상에 알릴 6종의 의류 샘플이 완성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한 ‘sell하다’로 2019년 10월 24일 금천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제품 품평회와 런웨이를 진행함으로써 ‘본연’ 브랜드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의류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들레워커에 없던 의류브랜드 ‘본연’을 론칭했고, 이를 알릴 수 있는 6종의 의류 샘플 작업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봉제작업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성품 제작까지 완전히 숙련되려면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컨소시엄 방식 역시 취지는 좋지만 시너지를 얻기에는 8개월의 사업기간으로는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를 이어가는 마을기업을 꿈꾸다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민들레워커는 요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민들레 씨씨(3cici.com)’라는 쇼핑몰을 구축했어요. 곧 오픈하게 될 쇼핑몰에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만든 6종의 본연 브랜드 의류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의류 아이템을 차근차근 늘려갈 생각이고요. 아울러 솜씨공방에서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들도 쇼핑몰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콘텐츠인 만큼 의류산업에 집중하는 한편 기존에 해왔던 민들레워커의 사업도 꾸준히 이어진다. 특히 봄가을시즌에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일자리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앞으로도 조합원을 우선순위로 두되 비조합원에게도 기회를 열어둘 계획이다. 김 대표는 교육의 기회를 조합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부여하는 것도 꾸준히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한다.

“민들레워커의 목표는 ‘대를 이어가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마을 안에서 일자리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많은 급여를 가져갈 수 없더라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가는 마을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지원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서울형 마을기업의 모델’이었던 만큼 민들레워커의 경험을 나눠주길 바라는 마을기업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 묵묵히 가치실현을 하는 마을기업이 늘어나는 데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시작해 마을을 더불어 살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나아가 다음 세대의 일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 콘텐츠를 마련한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스스로 씨앗을 퍼트려 자생하는 민들레처럼 이번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움을 틔운 새로운 사업 콘텐츠가 민들레워커의 생명력을 한층 북돋길 기대해본다.

민들레워커가 론칭한 브랜드 ‘본연’은 런웨이 품평회를 통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민들레워커의 교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은

솜씨공방과 원예공방의 사업화를 기반으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실현을 위해 2013년 설립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자연과 이웃과 지역이 연대하는 건강한 공동체,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참’가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5길 13(시흥동) | 전화: 02-895-3379



#03.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컨소시엄

01 경력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확대

4명 고용

02 자체 브랜드 '본연' 론칭

‘본연’ Launching

정량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자체 브랜드인 '본연'을 론칭했다는 것. 민들레워커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브랜드 네이밍부터 스토리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본연'에는 '환경과 지역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억지로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 편안한 몸에서 나오는 경쾌한 활동, 언제나 나답게'라는 의미를 담았다. 전문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여러 번의 수정과 샘플링을 통해 처음으로 '본연'이라는 브랜드 태그를 단 의상은 모두 6종. 이들은 모두 브랜드 컬러인 향토브라운, 썩그린, 석류그레이, 치자옐로우, 썩, 치자 등 자연염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만들어졌다. 소비자들을 만날 채비를 마친 '본연' 브랜드는 쇼핑몰 '민들레씨씨(3cici.com)'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사계절 의류 6종 제작

6종 제작

쇼핑몰 민들레씨씨 3cici.com 확보

3cici.com

정성

지역에서 환경개선활동가 교육활동을 같이 하던 비영리 환경단체인 '숲지기, 강지기'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지역 어르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의기투합하면서 시작된 금천구의 마을기업이다.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은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으로 지금은 사양산업이 된 봉제업의 메카였던 금천구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한때 미싱 좀 밟아본 분들의 재취업과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의 사업군 확장을 결합한 새로운 마을기업의 상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과거 80~90년대 봉제업에 종사한 경력단절여성의 봉제 재교육화와 지역의 디자이너,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개발 및 홍보와 함께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의 사업모델 확장을 동시에 실현하여 서울의 특성을 활용한 제조업 중심의 마을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지역밀착형 돌봄교육서비스 안착 및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04

도시마을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명 _ 돌봄 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목표 _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고려한 추가 서비스 개발, 가가호호에 적합한 돌봄교육서비스 콘텐츠 개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기업들의 지역밀착형 돌봄교육서비스 안착 및 확산

#취약계층 밀집
#돌봄SOS센터 사업
#도라보니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의식주 외 정서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 편이다.

서울시 정책에 따른 돌봄SOS센터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상연계 편의서비스로 이동·동행 지원, 식생활 위생 지원, 주거개선사업 등에 국한해 진행하다보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지역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모아졌다.

다행히 도시마을협동조합을 비롯한 강서구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2018년 사회적경제 돌봄 협업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형성을 위한 돌봄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받아 공동브랜드 '도라보니'를 개발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패키지와 하여 진행했던 경험과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만족도 높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교육서비스가 그룹이나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의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돌봄교육서비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시마을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했다.

○ 도시마을협동조합 주도로 네트워크 형성

강서구에 소재한 도시마을협동조합은 이를 총괄하는 마을기업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인 우드락공작소(예비 사회적기업),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음교육협동조합, 모해교육협동조합(마을기업), 강서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과 협업해 먹거리, 청소·방역, 정서 지원, 목공, 헬스(건강) 등 강서구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및 노인돌봄지원기관과 협업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공동목표를 설정해 조직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한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에서 도시마을협동조합은 강서구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즉, 도시마을협동조합의 주도 아래 강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 가양4·5복지관,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우드락공작소, 모해교육협동조합, 이음교육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동기획사업에 들어갔다.

먼저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과 연계한 정서지원 통합 마을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은 방역과 청소,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3개 기업과 가양4, 5복지관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관내 다른 복지관 및 복지센터들과 컨설팅과 간담회, 우리동네 나눔사업 마을돌봄 성과보호회 등을 통해 향후 협업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인지와 신체능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은 경계성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와 신체능력 강화를 위한 골패, 퍼즐맞추기, 사물맞추기, 한강다리아기 등 4종의 프로그램 개발로 진행되었다. 또 지역돌봄 사업을 고려하여 개발된 돌봄교육서비스 콘텐츠 시범사업은 인지와 정서, 노작운동을 통한 신체능력 강화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4회 차에 걸쳐 세트로 진행되었다.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마을협동조합이 시뮬레이션을 총괄해 개발한 돌봄교육서비스 콘텐츠는 초반에는 돌봄SOS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커뮤니티 사업으로 인지와 신체능력 강화 서비스를 개발해 매뉴얼을 만들고,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돌봄교육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목표와 실적

사업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정량적 목표	정량적 실적	정성적 실적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업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네트워크 회의 진행 (초기 2회) • 월 1회 사례회의 및 서비스 평가 회의 진행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구축회의 2회 • 운영위원회 구성 • 정기 운영위원회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사례관리 • 기관과의 통합 돌봄 협업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및 매뉴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회의 6회 • 교육콘텐츠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작 • 전문 컨설팅 및 자문회의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회의 4회 • 공동컨설팅 3회 - 돌봄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컨설팅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기업들 간의 결속력 강화 • 참여 교육기업들의 돌봄에 대한 관심 증가
시범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이상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 10명, 단체교육 (10명 내외) 3팀 진행 • 방역 3팀, 청소 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90% 이상 만족해함 • 복지관에서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가
평가 및 성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 운영위원회 주축으로 정 기간담회 진행 • 9월 초순 중간평가 진행 • 11월 초 최종평가 진행 • 11월 초 최종평가회를 기반으로 한 성과공유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초 중간점검 및 평가 진행 • 11월 3차 운영위원회 및 최종평가 진행-12월 성과공유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SOS센터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과 성과공유회를 함께 진행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림

도시마을협동조합은

도시마을협동조합은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주민들이 만든 공동체에서 출발해 2014년 사업체로 발전했다. 해충방제서비스, HACCP 컨설팅, 방제용품 제조판매, 소독방역방제, 환경위생아카데미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이외에 관련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한다.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마길 24, 1층 | 전화 : 070-4120-6781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업 협업으로 지역 어르신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05

목화송이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명 _ 도봉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어르신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표 _ 2020년 시행 예정인 돌봄SOS사업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연계, 도봉구 내 사회적경제 협의체 결성



#어르신 인구 23%
#돌봄SOS센터

#05 목화송이협동조합 컨소시엄



도봉구는 전체 인구 34만 명 중 6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역 어르신들에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마땅찮은 실정이었다.

도봉구는 2020년 돌봄SOS센터 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돌봄사업을 앞두고 있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협업체 구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봉구에는 150개가 넘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지만 돌봄서비스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는 뚜렷하게 없는 상황. 도봉구의 마을기업인 목화송이 협동조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4팀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 치매예방 및 인지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봉구 사회적경제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이를 2020년 시행될 돌봄SOS센터 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연계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삼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확장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 지역 돌봄사업의 첫 단추를 꿰다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주도한 목화송이협동조합은 지역 내 4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나갔다. (주)더스티치, (주)손안에세상, (주)마을아카이브, SW&CT협동조합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에 녹여내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즉 면생리대, 예코백, 장바구니, 앞치마 등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느질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목화송이협동조합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실금 패드와 턱반이로도 사용 가능한 손수건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청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치매예방을 돕는 동시에 완성한 제품을 직접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더스티치는 뇌체조 및 생활 패션소품 수업, (주)손안에세상은 종이를 이용해 궁중의상과 휴대폰거치대 접기 수업을 진행했다. (주)마을아카이브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여행을 주도했으며, SW&CT협동조합은 아크릴 조명 등 만들기, 드론 비행 3D프린팅 이해 및 작업, 스마트폰 사용 교육 등 주로 남자 어르신 대상의 수업을 개발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 브랜드 ‘도어락’도 구축했다. 목화송이협동조합을 비롯해 협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도봉구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열어가라’라는 의미의 ‘도어락’ 브랜드를 통해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화 및 홍보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하나의 사업 목표였던 “도봉구 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 기업 협의체 구축”도 기대 이상의 성과로 마무리되었다.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을 계기로 뭉친 5개 기업들이 협업의 힘을 사업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확신을 더하면서 돌봄서비스 사회적경제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 그 결과 도봉구 내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로부터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준비단계를 거쳐 2020년 정식으로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은 도봉구가 맞닥뜨린 두 가지 커다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상생의 토대가 될 협의체 구성의 발판을 구축한 것. 도봉구 지역 돌봄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이끌어갈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약과 협업을 기대해본다.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은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목표와 실적

사업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실적	정성적 실적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개발 대상 어르신들 찾아내기 도봉구 내 돌봄 프로그램, 비용 등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들의 취향, 필요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사업가능성 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기업이 2가지 이상씩의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개발 ‘도어락’이라는 공동 브랜드 개발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동북4구 박람회 어르신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도 협업으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진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파악 ⇒ 가능성 발견 홍보 시 실태 원인 등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 새로운 협업개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보고	<p>도봉구에는 ‘도봉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력단’과 ‘도봉 이어서’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협의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있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사회적경제 기업들 스스로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준비 단계를 거쳐 2020년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함.</p>			

목화송이협동조합은

목화송이협동조합은 2006년 한살림 조합원들이 환경과 여성 건강에 좋은 면생리대를 보급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다음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면생리대, 장바구니, 예코백, 텀블러파우치, 손수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지역의 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66 (방학동, 2층) | 전화 : 070-7124-9351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 모델 개발

#06

모해교육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명 _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 모델 개발

목표 _ 마을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 모델 제공 및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돌봄 시스템 마련



#마을학교
#개방형 돌봄
#마을돌봄 통합 모델

#06 모해교육협동조합 컨소시엄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활동과 아동, 성인 대상의 교육을 병행해온 모해교육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동 단위 마을학교를 바탕으로 한 지역돌봄모델을 꿈꾸는 마을기업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은 모해교육협동조합이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조금씩 윤곽을 더해가던 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마을돌봄 공간 확보로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 모델'의 시범운영이 가능했던 것. 이뿐만이 아니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마을돌봄 컨설팅 또한 이루어졌다.



○ 마을돌봄 모델의 가능성을 담금질하다

강서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이음교육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 이 사업은 지역에 마을돌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거점 공간을 제공할 의지를 갖고 있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돌봄활동에는 1차적으로 콘텐츠를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다. 모해교육협동조합은 돌봄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마을기업으로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해온 터. 그동안 공간이 없어 돌봄을 제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간 제공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 방화6단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이들 10명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복지, 먹거리를 통합된 마을돌봄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마을이 함께 돌보는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기획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마을돌봄 매뉴얼'도 개발했다. 별도의 공간은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를 위해 마을돌봄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조성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이번 공동기획사업을 주도한 모해교육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아가야', 관악구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등이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한데 모아 구성했다. 안내문과 출결 관리 등 운영 방식부터 아이들의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급식 매뉴얼, 생태놀이, 전래놀이, 보드게임, 책 놀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돌봄 운영, 프로그램, 먹거리를 포함한 통합 매뉴얼을 제작했다. 따라서 마을돌봄 통합 모델의 매뉴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향후 돌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교육하거나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시 인큐베이팅 자료로서도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모해교육협동조합(이하 모해교육)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과 아동·성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 대상자는 보통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이며, 생태체험, 역사체험, 상자텃밭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한다. 교육은 강서구의 역사와 향교를 주제로 각 교육 대상자 연령층에 맞게 내용을 구성했다.

한편 최정희 모해교육협동조합 대표는 “마을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것과 더불어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며 “지역과 관계 형성을 위해 아이들과 지역 기관이나 어른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기도 한다”는 말을 통해 마을기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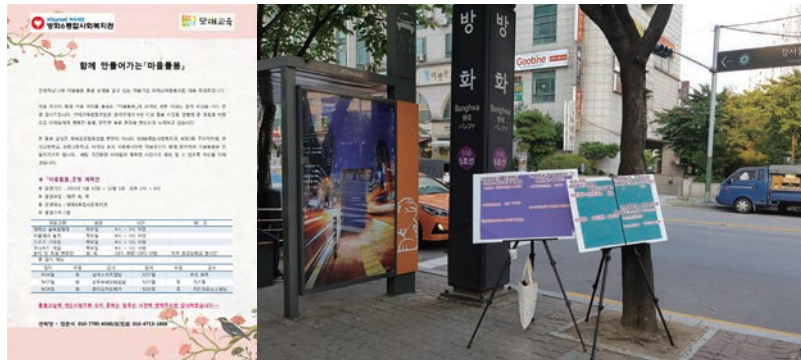
○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목표와 실적

사업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실적	정성적 실적
개방형 마을돌봄 통합 모델 개발	• 1개 권역 시범사업 운영 • 학교 돌봄의 현황 파악 : 간담회 1회 • 마을돌봄 토론회 진행 : 1회	• 마을돌봄의 필요성 인식 확산 • 돌봄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 마을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관·학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시범사업 10여명 학생 참여 • 운영위원회 2회 • 컨설팅 2회 • 학부모 간담회 2회 • 학교돌봄 담당자 간담회 1회 • 토론회 1회	• 서울권역의 지역돌봄 네트워크 발족 • 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도서관, 복지관, 학교 등 연계)
마을돌봄 매뉴얼 제작	• 마을돌봄 매뉴얼 1식 • 급간식 매뉴얼 20종 • 마을놀이 프로그램 개발 : 3종 이상 • 컨설팅 2회	• 돌봄 업종의 경험을 보유한 조직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 매뉴얼	• 마을돌봄 매뉴얼 1식 (운영, 프로그램, 급간식, 컨설팅 4개 부문) • 급·간식 매뉴얼 20종 • 마을놀이 프로그램 : 보드, 전래, 책놀이 3종 개발	• 서울권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노하우 공유

모해교육협동조합은

초등학교 1~4년 대상으로 생태체험, 역사체험, 상자텃밭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방과후 돌봄활동과 아동·성인 대상으로 강서구의 역사와 향교를 주제로 교육하고 있다. 동 단위 마을학교를 바탕으로 한 지역돌봄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길 22 | 전화 : 070-8862-2684





2019년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2019년에 수행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지원사업 소개	78
지원사업 성과	80
참여기업 사례	82

- #07 다사리협동조합
- #08 꽃망우리협동조합
- #09 아리알찬협동조합
- #10 (주)에덴스푸드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관련 지역문제 해결 및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마을기업 역량강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8년 이후 보육, 건강, 교육, 주거안정, 안전한 먹거리 등 마을 돌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지역기반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를 마을관계망을 통해 해결·보완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마을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9년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먹거리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서울시 정책사업(키움센터 등) 및 지역 정책사업에 어린이 급식 납품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 매장(공간)과 먹거리를 기반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시간제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사업 모델로 마을기업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로 발돋움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맞벌이,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만큼 이를 지역 안에서 마을기업이 해결·완화해보고자 했습니다.

목표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지원 및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마을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운영 역량강화

지원 대상



지역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중 먹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분야



- 자치구 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먹거리·돌봄 관련 서비스의 개발·유통·공급 프로세스 구축 등 협업화 모델 구축
- 지역 내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식당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비

지원 규모

마을기업당 평균 **12,500,000원**(4개 기업)

지원 내용



직접 지원 내용

- 지역 내 영업망 확대에 필요한 인건비
- 고객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 영업활동을 위한 홍보비(홍보체계 구축, 예약시스템 구축, 기업 식단 및 식당 홍보 등)
- 신규메뉴 및 서비스 개발, 위생역량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교육비·재료비
- 개발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범운영비

간접 지원 내용

- 컨설팅 지원 원가계산·절감, 급·간식·케이터링 프로세스 구축, 운영매뉴얼 제작, 홍보, 예약 및 구매시스템 구축 등 기업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분야
-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참여 기업

자치구	마을기업명	사업내용	업종	조직형태	대표자
용산구	다사리협동조합	해방촌 마을교육 생태계형성을 촉진하는 어린이·청소년식당 시범사업	제조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협동조합	남기문
중랑구	꽃망우리협동조합	중랑구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 사업 '꼬맹이 밥상'	식당업	협동조합	김민웅
동작구	아리알찬협동조합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	분식 / 카페	협동조합	김숙영
관악구	(주)에덴스푸드	꿈나무카드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어린이식당	음식점업 / 휴게음식점	주식회사	한성진

01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 대상 급·간식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대상 기업영역력 강화 및 지원사업 기간 동안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을 추진

02

기존에 추진하던 먹거리 사업을 어린이 특화 식당, 식당 매장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지역 내 맞벌이 가정 및 위기가정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 돌봄의 가능성 확인 및 기능 고도화를 지원

03

지원사업 전 사전진단 및 선정 후 공동워크숍, 현장모니터링, 기업별 특화 교육 및 피어 컨설팅으로 기업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실제 기업에서 공간에 대한 자체 투자 및 어린이식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기업 역량 갖추기를 지원사업으로 수행

04

대도시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먹거리 분야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맞벌이 가정 등)할 수 있고, 이를 마을기업이 보완할 수 있으며 충분히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4개 기업 선정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지원 및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마을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4 기업

- ▶ 어린이·청소년
- ▶ 마을기업 발돋움
- ▶ 4개 기업 선정



전체 워크숍 1회 & 수진기업별 피어 컨설팅 3개 기업, 역량강화 교육 4회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워크숍 1회를 비롯해 현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해당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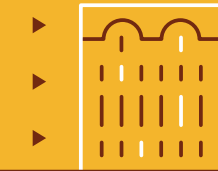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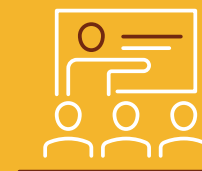


4 회

결과보고회(지원사업 통합) 1회

사업에 참여한 각 기업의 사업 진행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결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 회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식사로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의 모델에 다가가다

#07

다사리협동조합

사업명 _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식당

목표 _ 건강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둔 협력적 종합예술 마을교육생태계 형성

다사리협동조합
전통장을 직접담판
우리 학교에 더 어울립니다
<마음한결 풍성한 저녁>
맛도정한 쌀로 밥을 짓습니다
풍부 신선한 토끼콩나물
지정받은 전통장을 사용합니다
안전, 가격, 맛, 영양 판매합니다
음식을 깨끗하게 행성으로
조리합니다.

#전통장
#교육공동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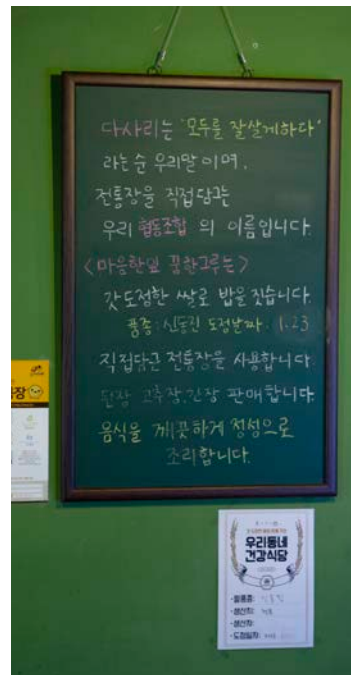
#07 다사리협동조합

다사리협동조합(이하 '다사리')은 전통장을 연구 및 제조해 판매하는 마을 기업이다. 정직한 재료에 전통 방식을 고수한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여 숙성한 깊은 맛으로 신뢰를 쌓아온 다사리는 전통장을 만드는 마음으로 지역의 교육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 학생들에게 전통장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예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이 중요시되는 미래교육을 펼치는 협력종합예술 마을학교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이하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으로 실시한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식당'은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사리의 바람과 해방촌의 특성상 방과후 안정적인 식사를 원하는 학생 및 보호자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사리는 이를 토대로 2020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방과후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식당 및 키움센터 저녁식사 납품'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다사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출범한 마을기업인 만큼 신뢰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 전통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넘어 교육까지

“본당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장을 담가서 나눠먹자.”

다사리협동조합은 출범 당시 서울해방촌본당 주임신부였던 이영우 신부의 농담 같은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저 웃어넘겼던 이 말은 신자들 사이에서 오래 회자되다가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의 조언 등이 보태지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마침 서울시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라 좀 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영우 신부님을 비롯한 본당 신자 20여명과 지역주민 7명이 한 명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출자해 협동조합을 세운 게 2014년 2월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이름은 ‘모두가 잘 살자’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다사리’에서 가져왔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출범한 다사리는 마을기업으로서도 신뢰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즉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전통장’을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 유전자변형이 안 된 국산콩과 전남 신안에서 만든 천일염을 고집했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전통장인 만큼 성당 마당 한쪽에 장독대를 마련해 숙성시킴으로써 자극적이지 않은 맛의 소화를 돕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었다. 출발점부터 함께한 남기문 대표는 이처럼 기본을 지킨 덕분에 협동조합으로써 꾸준히 성장해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초창기에는 본당 신자들이 하나둘 구입하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2017년 7월에는 해방촌본당 인근에 ‘마음한잎 꿈한그루’라는 마을기업의 식당도 열었죠. 이곳에서 전통장을 활용해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신앙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사리는 2018년부터는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동체 사업인 연극 학교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신광여고 등 인근 학교와 협약을 맺고 ‘전통장 만들기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전통장을 담그고 교내에 장독대를 비치해 숙성과정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장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전통장을 연구하고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에게 전통장으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토대 위에서 입시 위주의 경쟁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예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이 중요시되는 미래교육을 펼치는 협력종합예술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다사리는 ‘모두가 잘 살자’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에서 가져왔다.

○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식사를 고민하다

다사리가 마을기업 식당으로 운영 중인 '마음한잎 꿈한그루'와 별도로 지역 아이들의 저녁식사를 위한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식당'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육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방과후 아이들의 저녁식사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까닭에서였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 · 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은 지역 내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식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다사리에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볼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마음한잎 꿈한그루’ 매장을 활용해 2019년 10, 11월 두 달에 걸쳐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10월에는 무료로, 11월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50명을 모집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식당을 찾는 학생들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기피하는 음식 등의 선호도를 파악해 어린이식당 운영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한편 어린이식당과 마을학교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이었죠.”

시범운영했던 두 달 동안 매일 15~17명의 해방촌 아이들이 식당을 찾았다.



다사리가 운영 중인 '마음한잎 꿈한그루'에서는 전통장을 활용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도 섬세하게 세웠다. 월 예약제 운영을 위해 선불카드를 발급해 이용학생을 관리하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공휴일은 제외)로 정했다. 학생이 예약할 경우에는 정보란에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해 특정 식재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 메뉴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메뉴에 적용하는 한편 '수요일은 떡볶이데이'처럼 특정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이벤트 요일도 운영했다.

실질적인 사업의 출발점은 어린이식당 이용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였다. 해방촌 협력종합예술 마을학교 '딩딩스쿨' 수강학생들에게 식당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해방촌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는가 하면 마을 내 교회와 성당 등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했고, 현수막과 더불어 마을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덕분에 해방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306명 중 10%에 해당하는 38명이 접수했고요. 5%와 인연을 맺는 성과를 거두어 시범운영했던 기간 동안 매일 평균 15~17명은 꾸준히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다사리의 성장을 견인해온 남기문 대표





전통장을 빛는 마음과 정성으로 다사리의 어린이 청소년식당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 중이다.

해방촌

○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 마련

목표한 수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 단계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적잖다. 앞서 밝혔듯 해방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 10%가 접수했고 5%와는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비롯해 보호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식당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을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와 사회복지시설, 보습학원 등과의 협력기반을 조성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도 시범운영을 통해 경험치로 쌓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식사 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 일반 식당보다 안전한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식당이 꼭 필요한 학생들, 즉 맞벌이 부부 자녀와 조손 자녀 등을 발견한 것인데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식당을 이용한 학생들 중 70%가 이에 해당해 마을복지사업의 수행자로서 마을기업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과 못지않게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도드라졌다. 우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무관심으로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맞닥뜨렸다. 학원 등 일상화된 학생들의 방과후 스케줄로 말미암아 어린이식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이 다수라는 점도 향후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였다. 무엇보다 최소 운영이라도 가능한 이윤 창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고민거리로 남았다.

“시범운영기간 중 무료 이용 시 신청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는 무책임한 학생들이 있어 아쉬웠어요. 50% 할인기간 중에는 신청한 날에 사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는 보호자도 있었어요. 따라서 식재료비 정도의 소정의 유료화와 월정액 미사용에 대한 환급 제한으로 이용학생 및 보호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 내 학원과 연계해 학생들이 방과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도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 어린이와 청소년을 분리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내 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에 따라 식당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번 시범사업에서 도출한 개선방향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이 같은 값진 경험들은 다사리가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방과 후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식당 및 키움센터 저녁식사 납품’ 사업 진행 시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방과후 저녁식사가 불안정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마을 학생들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설립될 해방촌 및 해방촌 인근의 키움센터와 협력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와 정성, 여기에 맛이 제대로 우러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일. 이는 비단 전통장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식당을 준비하는 일에도 필요할 터. 전통장을 연구하고 빛는 다사리협동조합의 마음과 정성으로 머지않아 해방촌에 어린이 청소년식당이 문을 열길 기대해본다.

어린이 식당



다사리협동조합은

전통장 제조·판매를 기반으로 해방촌에 마을기업 식당인 ‘마음한잎 꿈한그루’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방촌 협력종합예술 마을학교 ‘딩딩스쿨’을 운영하며 교육공동체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 청소년식당 운영으로 저녁식사가 안정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5길 69 | 전화: 02-792-3020

Result

#07. 다사리협동조합

01

두 달 동안 제공한 저녁식사 630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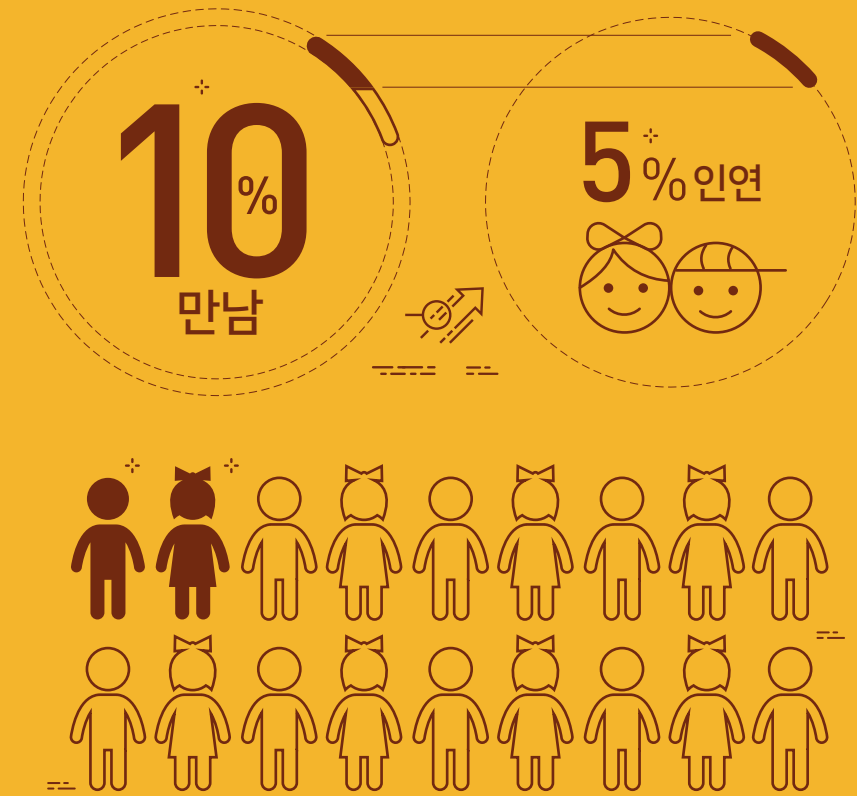


정량

시범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식당을 운영한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이용 학생들 수는 15명 내외였다. 따라서 42일 동안 다사리의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 식당'에서 제공한 저녁식사는 총 630인분에 달한다. 시범운영한 두 달 동안 '해방촌 어린이 청소년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접수한 아이들은 총 38명. 이는 해방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06명 중 10%에 해당하며, 5%와는 인연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방촌 거주 초등학생 중 10% 만남 5% 인연

02



정성

다사리협동조합은 장 담그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실현, 전통장을 활용한 식당 운영, 지역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을 운영하는 용산구의 마을기업이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의 유휴시간을 활용해 해방촌 맛별이 부부의 자녀, 조손자녀 등 먹거리가 불규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당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평상, 마음을 잇다. 다시 피어나는 마을, 꽃망우리

지역 어린이의 건강과
마을기업의 미래를 돌보다

#08

꽃망우리협동조합



사업명 _ 종량구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 사업 '꼬맹이반상'

목표 _ 지역기반 어린이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로 지역아동의 돌봄과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의 자리 확립 기대

Story

#마을의 역할
#먹거리 돌봄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08 꽃망우리협동조합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 한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터.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는 돌봄과 관계맺음을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태환경을 제공해주려는 어른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 '꽃망우리 협동조합(이하 '꽃망우리')'이 있다. 2017년 마을기업을 설립한 이래 '느티 나무 그늘아래 평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먹거리 사업을 운영해온 꽃망우리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대신 지역의 교육복지기금으로 환원해왔다. 2019년 하반기에는 사업 아이템 전환과 더불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이하 '어린이 · 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에 선정되면서 먹거리를 통한 보다 밀착된 어린이 돌봄에 나섰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반찬사업을 기반으로 어린이 반찬 및 간식 아이템 개발과 어린이 밥상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돌봄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의 가능성까지 한층 북돋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 꽃처럼 아름다운 마을, 망우동 알리기 프로젝트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인양 확대되어 통설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다. 가령, 서울시 중랑구의 동네인 망우동만 봐도 망우리공동묘지로 말미암아 일부 어두운 이미지가 드리워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망우동은 편리한 교통과 주변에 숲과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참 살기 좋은 동네다. 망우동 주민이자 꽃망우리 창립멤버인 박영운 이사는 이처럼 망우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서서 꽃처럼 아름다운 망우동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을기업이 꾸려졌다고 말한다.



“2012년쯤 마을의 한 카페를 자주 찾던 단골들 중심으로 우연히 주민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뜨개모임처럼 소소한 모임부터 주민들 대상의 음악회도 했고요. 그러다 3년 후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인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과 아이들’을 열었죠. 이곳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모임도 이어졌는데요. 마을장터나 마을축제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면서 2017년에는 꽃망우리 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을 설립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설립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했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가볍게 술을 한 잔 하고 싶어도 갈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것. 이러한 사소한 불편함이 ‘우리가 직접 가게를 차려보자’라는 행동으로 옮겨졌다.



꽃망우리협동조합의 창립멤버인 박영운 이사

“가게를 차리되 동네의 기존 상권을 해치지 않는 아이템을 찾았고, 그 결과 우리 동네에 백반집과 세계맥주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백반을 팔고, 저녁에는 세계맥주를 파는 마을공동체 가게에 뜻을 모으게 됐고, 주민 공모를 통해 ‘느티나무 그늘아래 평상’이라는 가게 이름까지 지어졌죠.”

말 그대로 마을 어귀에 하나씩 놓여있는 평상처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새참이나 막걸리 한 잔을 나누기도 하며, 편한 자세로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기에도 좋은 공간을 추구한 셈. 이에 부응하듯 ‘느티나무 그늘아래 평상’은 오픈 이래 점심에는 백반집, 저녁에는 세계맥주를 파는 술집이 되었다가 주말에는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여 공간으로 살뜰하게 활용되었다.

망우동 주민들의 밥집이자 사랑방으로, 꽃망우리의 든든한 사업 기반이 되어주었던 ‘느티나무 그늘아래 평상’은 지난해 9월 시즌2 돌입과 더불어 사업의 방향전환과 판로개척을 추진했다. 망우동에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만드는 마을기업을 표방한 만큼 동네에 백반집과 세계맥주집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굳이 동네 상권과 중복되는 메뉴를 판매할 이유가 사라진 것. 대신 그동안 홍보마케팅 없이 순전히 입소문만으로도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락과 반찬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삼았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꽃망우리협동조합은 시즌2를 맞아 반찬과 도시락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



○ 자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의 협업

도시락과 반찬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한 꽃망우리는 어른 중심이었던 기존과 달리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동안 반찬을 구입하러 온 주민들 중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찾는 이들이 적잖았던 데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먹거리 개발의 필요성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함께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이 성장 특성에 맞는 지역의 먹거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별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공급처의 중요성도 대두되었고요. 자연스레 기존의 반찬 기반 도시락 사업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어린이 메뉴를 개발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죠.”

단순히 어린이 간식과 반찬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밥상을 통해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하는 먹거리 문화(공동체 밥상)를 정착시켜 정서적 안정을 부여하자는 목표도 세웠다.



꽃망우리협동조합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먹거리를 개발했다.



어린이 먹거리는 돌봄을 비롯해 영양, 재료 선별 등 세심하고 까다롭게 접근해야 한다.

공동체 밥상



물론 어린이에 특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어린이 전용 식당을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일은 무엇 하나 녹록지 않았다. 아이들의 먹거리는 돌봄이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영양, 재료 선별에 있어 더욱 세심히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까닭. 이를 위한 식단구성이 필수이므로 기본식품, 영양, 위생 관련 교육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맞춘 메뉴 구성의 기획단계도 빼놓을 수 없다. 자그마한 규모의 마을기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도드라졌다. 이를 추진할 전문 인력과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린이 먹거리에 걸맞는 급식시설의 보완 및 확충도 필요했던 것. 꽃망우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간 탄탄하게 다져온 마을공동체 활동을 뒷심 삼아 차근차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센터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먹거리·돌봄 관련 서비스의 개발과 유통, 공급 프로세스 등 협업화 모델 구축과 더불어 어린이식당의 시스템을 갖추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비용을 담당했다면, 홍보활동과 시범사업 장소 등에 대한 답은 마을공동체에서 구했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꽃망우리의 지역 어린이 돌봄사업은 센터의 지원사업과 마을기업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 중랑구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다

중랑구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꽃망우리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식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한 메뉴 개발에 초점을 둔 '어린이 반찬 및 간식 아이템 개발'과 맞벌이 자녀 및 취약계층 자녀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시범사업이자 개발한 어린이 반찬 및 간식 아이템의 모니터링 기회로 삼은 '어린이 밥상'이 그것. 목표를 구체화한 꽃망우리는 첫 단계인 수요조사에 나섰다.

"수요조사가 필요했던 시기에 마침 꽃망우리마을축제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반찬과 간식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를 토대로 남남갈비, 오색채소칩, 햄리본 말이, 미니두부버거 등 15종이 넘는 어린이 반찬과 간식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수요조사에 기반해 개발한 다양한 반찬과 간식 아이템은 '마을과 아이들'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직접 시식해볼 수 있도록 했다. 시식회는 소비자의 기호에 좀 더 부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입맛의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식혜의 경우 '달달식혜'와 '안달달식혜'로 나누어 개발했고, 전통적인 먹거리 구현에 대한 고민 끝에 어린이 미각과 보호자 요구를 수용해 백설당과 인공색소 대신 마스코바도 설탕과 천연색소(쑥, 단호박, 딸기)를 사용한 한과와 식혜, 꿀떡 등을 제조했다.

'꼬맹이'라는 꽃망우리만의 브랜드 창출과 더불어 홍보활동도 본격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마을기업 회원들, 중랑 마을넷 등 기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부녀회와 연계해 아파트 거주민 대상의 홍보활동과 방과후교실을 겨냥해 중랑구 관내 학교에 쿠폰북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기존 거래관계인 지역교육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활동을 펼쳤는가 하면 중랑구청 일자리경제과, 중랑교육복지센터와 협의회를 진행해 중랑구 내 어린이 먹거리 수요처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시범사업 기간에 남양주 한강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신내동 마을계획단 놀이축제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꽃망우리마을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를 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맞닥뜨리기도 했어요. 일례로 처음 어린이 먹거리 관련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업무에 새로운 일이 가중되는 부담 탓에 주방인력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는데요. 조합원(주방인력) 워크숍을 통해 조합원들의 직무자긍심, 역량강화, 의미부여 등을 고취시킬 수 있었어요. 도시락 플레이팅 등 요리 관련 전문성 강화는 플레이팅 전문가인 예비 사회적기업 (주)엘마드레 이남주 대표와 한국요리심리치료협회 서명중 대표가 함께한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꽃망우리의 중랑구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 사업 '꼬맹이 밥상'은 시범사업을 통해 뚜렷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수요조사에 기반해 다양한 반찬과 간식 아이템을 개발했으며, 어린이 시식회를 통한 평가와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 차별화된 '꼬맹이' 브랜드를 개발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꼬맹이 도시락 납품과 이에 따른 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꿈꿔왔던 어린이 친화 식당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꽃망우리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20년에는 지역 네트워크가 운영하게 될 신축공간을 활용해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한 먹거리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꽃망우리협동조합은

2018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꽃망우리협동조합은 망우동에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현재 조합원은 65명으로, 수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지역의 교육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데 동의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꾸준히 조합원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액 출자자보다는 소액으로 여럿이 함께하는 마을기업을 꿈꾼다.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22, 1층 | 전화: 02-434-1202

Result

#08. 꽃망우리협동조합

01

15종 이상 반찬/간식 아이템 개발

15종 이상 아이템 개발 

정량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오색채소칩, 남양갈비, 달달식혜/안달달식혜, 명품떡갈비 컵밥, 햄리 본말이밥, 미니두부버거, 꽃떡꿀떡 등 15종 이상의 어린이 반찬 및 간식 아이템을 개발했다. 중랑구 어린이의 건강한 먹거리에 '꼬맹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했다. 주민 공모로 정한 브랜드네임 '꼬맹이' 로고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조합원의 재능기부로 제작했다. 어린이 도시락과 어린이 브런치, 간식 페스티벌, 어린이 뷔페식 상차림 등 한 번에 25명씩 총 4번에 걸쳐 100여 명의 지역 내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개발한 메뉴를 시식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밥상이 제공되었다.

자체 브랜드 '꼬맹이' 개발

02



100명의 어린이에게 밥상 제공

03

100명 

정성

꽃망우리협동조합은 망우동 주민모임에서 시작해 지역아이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인 '마을과 아이들'을 열고, 지역주민의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 했고, 지역에는 없던 백반집을 주제로 2018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도시락 · 반찬 · 케이터링으로 사업의 무게를 옮기게 되었다. 동네에 신축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주로 신혼부부들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입주하면서 생기는 어린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번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으로 어린이 간식과 반찬개발, 어린이 밥상을 통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밥상을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메뉴를 개발 · 보완하여 지역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반찬과 간식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이 되었다.



#09 아리알찬협동조합

돌봄과 안전한 먹거리 모두 가능한
아동 청소년 친화형 식당으로

사업명 _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

목표 _ 관내 지역아동센터 급·간식사업 확대 및 학교 아동 돌봄교실 급·간식 판로 개척, 꿈나무카드 가맹점 등록을 통한 꿈나무카드 고객 확보, 일반가정 어린이·청소년 대상 판로 개척

#아리따고 알찬 사람
#해피트리

아리알찬협동조합은 '아리따고 알찬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아리알찬'에서 이름을 따왔다. 기업명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리알찬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잘 녹아있다. 아리알찬협동조합의 출발점은 2015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먹일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고민한 것이 시작이었다. 2017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아리알찬협동조합은 같은 해 당일 조리해 당일 판매하는 신선한 반찬과 엄마들의 정성 가득한 간식을 판매하는 마을 분식카페 '해피트리'를 열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아이들과의 소통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친밀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아리알찬협동조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넓히는 도전을 했다.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급·간식 사업 확대 및 신규 메뉴 서비스 개발 등이 그것이다.



○ 2개소에서 9개소로 급·간식 사업 확대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급·간식 사업 확대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보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리알찬협동조합은 직접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연락을 취하거나 동작구공부방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아동센터에 무료 급식 체험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영업망 확대를 꾀했다. 즉, 무료 급식 체험 이벤트를 통해 맛은 기본이고 개선된 급식의 방법과 품질에 대한 홍보에 충실한 결과, 6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식을 신청하였고, 추가로 1개소에서 석식을 신청하는 등 기존 2개소에서 9개소로 거래처가 늘어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급·간식 선택의 다양성을 위한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화에도 직결되는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아리알찬협동조합은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청소년에 맞춤형 메뉴 제공을 위해 신메뉴 개발에도 나섰다. 현 매장이 근접해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상권이 전통시장과 어른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어린이, 청소년들이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전무해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먹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이 필요했던 것. 아리알찬협동조합은 그간 축적해온 어린이, 청소년 대상 먹거리 노하우를 동원해 새로운 메뉴인 쿠팡 시리즈 론칭과 더불어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고기를 포함한 메뉴를 개발했다. 이를 매개로 꿈나무카드 가맹점 등록으로 꿈나무카드 사용 청소년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론칭 이벤트를 통해 인근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통살치킨으로 만든 쿠팡의 경우 맛과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을 받아 향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꿈나무카드의 경우 가맹점 등록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꿈나무카드 사용 실적을 별도로 관리해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정량적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아리알찬협동조합은 일반가정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섰다. 짧게 주어지는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기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인데다 홍보 부족, 적절치 않은 가격 책정 등의 이유가 보태져 다음 학기 시작 시즌에 맞추어 다시 홍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관내 학교 아동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한 급·간식 판로 개척도 계획했지만 접근부터 쉽지 않은 등 접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도 뚜렷한 실적 없이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들이 뜻하지 않는 장벽을 만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역아동센터 거래처 확대와 꿈나무카드 가맹점 등록, 신메뉴의 맛과 품질에 대한 뜨거운 호응 등은 앞으로 아리알찬협동조합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 목표와 실적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구분	세부 사업내용	정량	정성
• 지역아동센터 추가 발굴	• 무료급식 이벤트를 통한 홍보	• 기존 2개소에서 9개소로 급식 거래처 증대됨(중식 6개소, 석식 1개소 추가)	-
• 신메뉴 개발	• 신메뉴 조리, 탐방 등을 통해 메뉴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파육은 급식으로 제공해도 좋을 맛으로 개발됨 • 크림떡볶이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음 • 돈까스 및 치즈돈까스는 수제로 만드는 것 대신 여러 가지 기성 제품을 시식하여 제품을 선정하게 됨 • 케이터링 시 청포도 타르트와 티라미슈타트를 접목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목심스테이크 덮밥은 가격에 비해 맛의 호응이 좋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함 • 불고기 덮밥이나 무쌈 등은 단체 도시락 주문 시 채택할 만한 메뉴로 선택됨 • 쿠팡은 음료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쿠킹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빼빼로 만들기 • 딸기보틀 • 케이크만들기 • 와플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킹클래스를 통해 아이들과 1,2호점 각 매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매장을 찾는 문턱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학교 등 돌봄교실 거래 확대	• 돌봄교실 급·간식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등 돌봄교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거래처를 만들지 못함

아리알찬협동조합은

아이들에게 먹일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던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마을기업에 지정된 건 2017년. 당일 조리하여 당일 판매하는 신선한 반찬과 엄마들의 정성 가득한 간식을 판매하는 마을 분식카페 '해피트리'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0 길 40 두산트레지움 상가 101호 | 전화: 02-824-0216



매장 리뉴얼 및 돌봄서비스로 다가간 어린이 청소년 친화형 식당의 모델

#10

(주)에덴스푸드

사업명 _ 아동·청소년 돌봄을 위한 우리마을 어린이 식당

목표 _ 1일 판매 확대 및 매출 증대



#급식형 케이터링
#집밥도시락
#브런치형 샌드위치

#10 (주)에덴스푸드

(주)에덴스푸드는 2011년 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짜고 매운 데다 화학조미료가 많이 첨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복지사(지역아동센터 교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들, 구청 공무원이 머리를 맞댄 끝에 직접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기업이 에덴스푸드다. 이후 에덴스푸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식단을 꾸준히 개발해 친환경, 저염식, 건강식 식단을 지역아동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며 지금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왔다. 에덴스푸드의 사업은 크게 급식형 케이터링, 집밥도시락, 브런치형 샌드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급식형 케이터링의 경우 지역아동센터(학기 중 4개 소, 방학 시 7-8개 소)를 중심으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7-8개 초등학교에 방학 급식을 제공해왔다. 집밥도시락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기타 업체에, 브런치형 샌드위치는 관악구 내 병원 등에 주로 납품해왔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차근차근 사업영역과 매출 규모를 키워온 것이다.



(주)에덴스푸드가 매장 리뉴얼을 하기 위해 생각했던 매장 이미지

○ 꿈나무카드 사용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2019년 에덴스푸드는 또 하나의 문제의식에 맞닥뜨렸다. 이는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한 끼가 아닌 편의점 등에서 파는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섭취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서 비롯됐다. 에덴스푸드가 관악구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 내 결식아동은 평상시 1,000명에서 방학 때는 2배인 2,000명에 육박해 이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 제공처가 시급한 상황. 에덴스푸드는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을 우선순위에 두되, 일본 어린이식당의 예를 들어 꿈나무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들까지 대상에 포함해 자연스럽게 소셜믹싱(Social Mixing)을 유도, 계층에 상관없는 어린이 전용 건강식단 제공 및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계획하게 되었다. 아울러 단순히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소근육 발달과 창의성 교육에 효과적인 브릭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제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에덴스푸드는 지난 8년 동안 착실히 쌓아온 아동, 청소년 대상 먹거리에 대한 노하우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의 지원이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하나둘 현실화 되었다.



(주)에덴스푸드는 지원사업과 동시에 매장 리뉴얼을 진행했다.

○ 안전한 먹거리와 창의적인 돌봄의 결합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에덴스푸드가 진행한 사업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 번째는 어린이식당 홍보였다. 에덴스푸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지역아동센터 모임을 통한 2번의 시식회와 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브릭활동 등 2번의 이벤트를 활용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어린이식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돌봄프로그램도 하나의 사업이었다. 에덴스푸드는 어린이식당과 돌봄프로그램 수행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느껴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까지 계획했다. 실제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돌봄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했으며, 이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쌓는 한편 예약제 운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어린이 도시락 사업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취향을 고려한 깔끔한 도시락 식기류 구비에 중점을 두었는데, 용기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통일된 도시락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상승효과를 얻었고, 덕분에 도시락 배달 추가 주문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자신감까지 더해진 에덴스푸드는 향후 배달앱에 진출하겠다는 새로운 계획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끝으로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매장 구축을 위한 리뉴얼도 사업에 포함되었다. 에덴스푸드는 아동, 청소년의 소근육 발달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리뉴얼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체감했다. 결과적으로 에덴스푸드는 센터의 지원사업에 힘입어 어린이식당 홍보부터 돌봄프로그램, 어린이 도시락, 매장 리뉴얼 등 전반적인 니즈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어린이식당의 모델에 성큼 다가갈 수 있었다.

○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 목표와 실적

세목	사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실적	정성적 실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G 고객 일 150식 • B2C 고객 일 40식 • B2B 월식 판매 5개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바른 먹거리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 2회 • 시식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지역 내 관련 문의 다수 확인
돌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돌봄 • 소근육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운영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부터 점심 프로그램 운영 확정
어린이 도시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납품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구장애인복지관 도시락 배달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용기 업그레이드로 인지도 향상
매장 리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리뉴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소근육 발달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리뉴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증가 • 케이터링뿐만 아니라 매장 내 식사, 돌봄이 가능함을 지역사회에 홍보

(주)에덴스푸드는

에덴스푸드는 2011년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으로 시작해 2018년 9월 사회적기업으로도 인증 받았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급식형 케이터링, 집밥도시락, 브런치형 샌드위치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2길 111 1층 에덴스푸드 | 전화: 02-858-2953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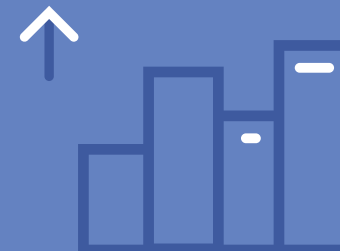
2019년에 수행한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한 14개 기업 17가지 사례를 담았습니다.

지원사업 소개 112

지원사업 성과 114

참여기업 사례 116

- #11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A)
- #12 바늘한땀협동조합(A)
- #13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A)
- #14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A)
- #15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A)
- #16 주식회사 아임우드(A)
- #17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A)
- #18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A)
- #19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A)
- #20 협동조합 잼터(A)
- #21 바늘한땀협동조합(B)
- #22 목화송이협동조합(B)
- #23 베블리협동조합(B)
- #24 주식회사아임우드(B)
- #25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B)
- #26 도시마을협동조합(B)
- #27 옛고를 협동조합(B)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액의 사업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역량 및 판로개척, 신사업 모델 개발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현안 문제 및 해결방안을 전문가가 진단 후 구체적이고 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을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함께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지원했습니다.

목표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서울시 소재 자립형, 서울형 마을기업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지원 분야



프로젝트 실행지원(A형) : 10개 기업

- 서울시 소재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 대상 경영문제 해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사업비 지원

온라인 입점(B형): 7개 기업

- 행정안전부-㈜이베이코리아 협업을 통한 온라인(G마켓, 옥션) 판로개척 지원

지원 내용

간접 지원 내용

- 신청기업 대상 사전경영진단 1회 이상 및 기업별 경영진단보고서 제공, 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시제품 개발

사업비 지원 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홍보 · 마케팅 · 부가서비스 콘텐츠 제작 · 개발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신규상품 시제품 제작 및 서비스 개발비 특허 취득 비용
- 제품 및 서비스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홈페이지 개발 · 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쇼핑몰 구축 개발비
- 상품포장 디자인 신규개발 및 제작비
- 마을기업 회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참여 기업

연번	유형	기업명	주사업내용	대표자
1	레벨업A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주방 컨설팅 및 HACCP인증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박꽃별
2	레벨업A	바늘한땀협동조합	친환경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for 고래'	곽경희
2	레벨업A	문화예술협동조합 결매	컨설팅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추진	조하연
3	레벨업A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한지공예체험	강명희
4	레벨업A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공예품 체험용 키트(DIY) 개발 및 시제품	심화숙
6	레벨업A	주식회사아임우드	심상무 십자가 브랜드화	심상무
7	레벨업A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우리동네나무그늘 CI 변경 및 로고디자인	정종현
8	레벨업A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친환경 상품포장재 개발	박태신
9	레벨업A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	역사문화 탐방객 접수용 홈페이지 보강 및 자동접속 앱 개발	이순애
10	레벨업A	협동조합 쟈터	마을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이진
11	레벨업B	바늘한땀협동조합	무궁화 허리치마	곽경희
12	레벨업B	목화송이협동조합	행복앞치마	한경아
13	레벨업B	베블리협동조합	오가닉 광목 인형 토블리(토끼인형)	김숙자
14	레벨업B	주식회사아임우드	탁상용십자가	심상무
15	레벨업B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국내산 참기름, 들기름	박태신
16	레벨업B	도시마을협동조합	사라세니아 UV LED 포충기	노정은
17	레벨업B	옛고를 협동조합	경복궁 쌀 조정	안순복

레벨업 A형

01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은 마을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모델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왔던 사업으로,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업계획의 고도화 및 사업 추진상 코칭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결합(사업 추진 전 또는 후)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여 경영 및 영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02

매년 약간의 지원내용과 지원사업비의 변동은 있었으나 큰 틀에서 목적 및 지원기조가 변화하진 않았음. 2017-2018년에는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행정 완화를 위해 센터 사업 담당자가 지출 회계 분야를 직접 실행해 주었지만, 올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비용을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직접 지원

03

사업계획의 고도화, 기업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사전경영진단이라는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보완하고, 구체적인 보완과정을 주어 기업이 다시 한 번 지원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확인하고 최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함. 다만 실제 기업이 개발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영업활동을 영위해야 함에도 기업의 사정상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원사업 종료 후 활용도는 기업별로 편차가 있음. 향후 기업의 사업성을 강화하면서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필요

레벨업 B형

01

2019년 처음으로 시작한 행정안전부-(주)이베이코리아 협력사업으로 (주)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2개소에 입점하였음. 사업 1년차에는 최대한 많은 양의 마을기업 제품을 업로드 하고, 본격적인 영업 및 홍보 활동은 2020년으로 계획

02

2019년에는 서울 내 마을기업(제조업)의 상품을 업로드 하고 고객들의 구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실제 구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재가 아닌 상품군들을 입점시키다 보니 기대한 만큼 매출이 나오지는 않음. 2020년 추가로 입점 및 홍보 사업을 추진 시 홍보와 관련된 비용을 연계하고 기업이 상품 및 포장, 배송 등 기업 역량에 대한 자체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레벨업 A형 10개 기업 선정

경영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필요로 하는 10개의 기업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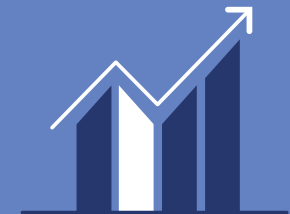
10
기업

- ▶ 10개의 기업
- ▶ 마을기업 레벨업 A형
- ▶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전경영진단 10회 & 지원사업 진행 관련 교육 1회

경영현안문제 및 해결방안을 전문가가 진단 후 구체적이고 기업이 수행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10
회1
회

성과공유회(지원사업 통합) 1회

레벨업 A형에 참여한 각 기업이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업내용과 경과,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했습니다.

1
회

#11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공유주방에서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레벨업

사업명 _ 마을기업 공유주방 공간기획 컨설팅 및 식품제조 분야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목표 _ 마을기업 공유주방 공간기획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통한 기업역량 가치 상승으로 마을기업의 경쟁력 향상

#HACCP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

#11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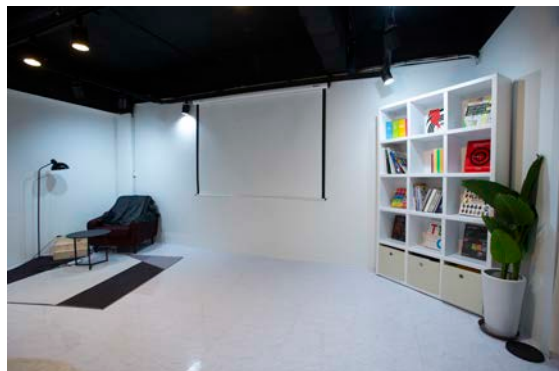
2019년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이하 '광진아이누리애')은 크게 두 가지 해결과제를 직면했다. 아트스쿨과 평생교육원 등 배움을 통한 돌봄 교육을 진행해오던 공간이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면서 공간 이전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고, 제조를 담당하던 마을 공유주방은 2020년부터 의무화된 제조시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다행히 돌봄공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기업의 고민은 마을 공유주방의 HACCP 인증에 집중되었다.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은 마을기업이 당면한 과제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할 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마을기업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간기획 컨설팅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HACCP 인증은 물론 마을 공유주방이었던 공간의 정체성을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장해 새로운 수익 모델로 탈바꿈시켜준 것. 여기에 식품 제조 분야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지원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을 위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성과를 낳았다.



○ 배우고, 일하고, 관계하는 마을기업

2013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이 기업은 아이들에게 바른 돌봄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해 2016년에는 여성가족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모인 엄마들이 좋은 먹거리를 고민한 것에서 출발했어요. 이후 다른 아이들도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제 먹거리를 만들어 팔게 되었고요.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다 경력단절 된 저를 비롯한 경력단절 엄마들이 함께 모여 뭐든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처럼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모여서 한 일들, 이를테면 돌봄, 교육, 제조, 지역사회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모으니 마을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가진 마을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박꽃별 대표를 비롯한 경력단절 엄마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박꽃별 대표는 초창기에 다소 혼재되었던 마을기업의 활동들이 경험을 더하면서 ‘배움’, ‘디자인’, ‘제조’라는 세 개의 사업 카테고리 체계화 되었다고 말한다. 즉, 배움 분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마을형 평생학습을 실천하며, 디자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혁신인재 육성, 직업능력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 분과에서는 서울정보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 분과에서는 ‘바른스토어’라는 수제 먹거리를 판매하는 마을가게를 운영 중이다. 광진구 지역 여성들을 주축으로 평생교육 및 제조, 디자인 상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인 것이다.



발돋움
재움

즐거움

이처럼 지역 주민이 배우고, 일하고, 관계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해온 이 기업은 2019년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돌봄 교육이 이루어지던 공간이 8월에 계약만료 되면서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여기에 2020년부터 식품제조시설의 HACCP 인증이 의무화 되면서 제조공간인 마을 공유주방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죠.”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돌봄교육 공간 문제가 해결되면서 HACCP 인증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나, HACCP 인증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까지 절차와 비용이 만만찮았다. HACCP 인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간과 제조시설 등의 기준을 따져봤을 때 섬세한 공간기획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 마을기업의 재정상 공사비 이외의 비용은 감당하기 버거웠던 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건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이었다.





마을 공유주방에서 HACCP 인증이 가능한 주방으로 리모델링 되었다.

○ 공간기획 컨설팅을 통한 쓰임새 확장

HACCP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예방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다. HACCP 인증이 가능한 식품제조업 공간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규모나 가격 면에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 이 기업은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활용해오던 공유주방을 HACCP 인증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마을기업의 제조식품은 물론이고 신상품 연구 개발이 필요한 외식사업자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막대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쓰임새를 확장하는 데도 의미를 두었다. SNS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셀러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을 양지로 데려오는 동시에 국민건강을 행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무게를 실은 것이다. 물론 HACCP 인증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HACCP은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보유한 공유주방 공간은 협소해서 효율적인 공간구획이 담보된 설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와 별도로 설계 전문가에게 작업을 의뢰할 여력이 생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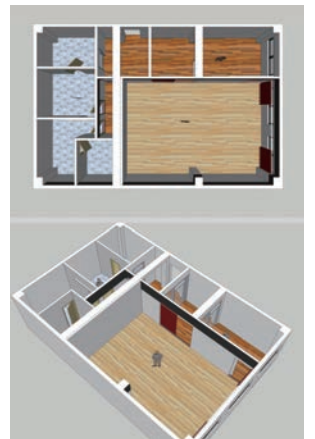
공간설계를 위한 과정은 매우 디테일하게 진행되었다.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한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로 운영 중인 공유공간들의 사례들을 조사해 트렌드를 읽는 자리가 마련되었는가 하면 인테리어 타입별 예시를 미리 보는 기회도 만들어졌다. 이 기업이 설계 전문가를 통해 가장 크게 도움 받은 부분은 좁은 공간을 쓸모 있게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었다.

“10차에 걸쳐 도면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하고 섬세한 공간기획이 이루어졌어요. 가령 매우 협소한 동선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미닫이문으로 교체하거나 오븐의 위치를 바꾸는 등 전문가가 아니면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조언들이 수정을 거듭하며 고스란히 설계도면에 담겼죠.”

덕분에 공간기획 컨설팅은 물론이고 도면과 내외장재까지 제시받는 등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실행 전 단계까지 매우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다.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식품제조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데까지 미쳤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HACCP을 비롯해 식품 분야 창업자와 재직자가 알아야 할 내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했다.

HACCP



10차에 걸친 도면작업이 이루어졌을 만큼 섬세하고 까다로운 공간 컨설팅이 적용되었다.



S P A C E



● '스페이스 움'에서 움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번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은 이 기업의 사업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공간기획 컨설팅을 토대로 한 대규모 공사 끝에 마을기업 공유주방이었던 공간이 '바른' 먹거리를 위한 HACCP 인증이 가능한 주방으로 발전 및 재설비 되었다. 여기에 마을기업의 디자인 분과인 서울디자인정보연구소와 전문가팀이 조인해 새로워진 공간에 어울리는 브랜딩을 덧입혀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 '스페이스 움'으로 재탄생하게 했다. 즉, 스페이스 움은 HACCP 인증이 가능한 전문가를 위한 주방 '발동 움', 메뉴 개발이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비전문가를 위한 작은 주방 '채움', 그리고 개발·출시된 디자인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소품 겸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의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 '즐거움'으로 구성되었다.

U M

#11 광진아이누리에서와적협동조합



"앞으로 스페이스 움은 소규모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HACCP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가능한 주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합에서 운영하는 '바른먹거리 연구소'를 통해 식품의 올바른 제조과정을 비롯해 유통을 위한 교육과 식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조합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개인이나 소상공인의 전문영역이 아닌 제품 브랜딩이나 마케팅 부분은 서울 정보디자인연구소와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 제로나인즈가 협업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페이스 움을 통해 '먹거리'와 '예술/디자인' 등 타 영역과 교류하고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 기업은 마을 공유주방에서 스페이스 움으로의 레벨업을 통해 이 공간이 생활과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조합과 지역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광진아이누리에서와적협동조합은

여성가족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광진구 지역 여성들을 주축으로 마을가게 및 제조, 디자인 상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1길 23 현대빌딩 3층 | 전화: 02-457-1210

Result

#10.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01

HACCP 인증



정량

2020년 제조시설의 HACCP 의무화에 따라 마을 공유주방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HACCP 인증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공간의 전문성이 향상 및 확장되는 성과를 얻었다.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3차시에 걸쳐 식품제조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했다. HACCP 선행요건 관리 기준, 위생교육, 식품제조업 창업 입문교육 등이 그것.

3차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03



정성

공동육아를 위한 지역주민의 모임으로 시작된 광진구의 마을기업인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할 사업군으로 먹거리, 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사업군을 진행하던 사업장을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팀과 협업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고, HACCP인증을 받은 공유주방을 만들기 위해 공간컨설팅과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HACCP이 탑재된 먹거리 기반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까지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지역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차별화된 경쟁력
친환경 제품,
마을주민과 상생하다

#12 바늘한땀협동조합

사업명 _ 환경 인식을 위한 교육 키트 '마을환경지킴이 : FOR 고래'



#생활한복
#한복앞치마

#12 바늘한땀협동조합

바늘한땀협동조합은 30년간 한복을 만들어온 광경희 대표를 필두로 전통공예품을 제작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주민참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도록 도와왔다. 전통의 미와 균형 이룬 현대적 감각, 21 세기의 화두 친환경 소재까지 아우른 바늘한땀협동조합의 대표 작품인 생활한복, 한복 앞치마, 천연염색 명주스카프는 특허와 저작권 등록은 물론 하이서울우수상품 브랜드 어워드로 선정된 바 있다.

새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으려는 바늘한땀협동조합은 실과 바늘로 사랑과 희망을 잇고 짓는 마을기업을 지향해왔다. 때문에 마을주민과의 관계망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 하는 건 늘 중요한 과제였다. 당연하게도 마을환경과 환경오염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사회와 발맞춘 마을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희망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 분리수거 실천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플라스틱과 일회용 사용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캠페인 '노플라스틱챌린지'를 구상하며, 마을주민 대상 환경교육 '친환경 에코가방 만들기'를 기획한 까닭도 그 맥락에서였다.



환경 인식을 위한 교육 키트 '마을환경지킴이 : FOR 고래'를 개발했다.

○ 레벨업 성과

바늘한땀협동조합은 주요 사업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선택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인식을 위한 교육 키트 '마을환경지킴이 : FOR 고래'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마을주민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무형광방수소재 재질을 이용한 분리수거함 만들기 반제품 교육 키트 2종을 개발했고,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의 협업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은평구 학생 대상 사전 테스트 교육을 1회 진행했다.

짧은 지원사업 기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얻진 못했으나 이번 경험에 시간을 더하면 바늘한땀협동조합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더 많은 마을주민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소외된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음원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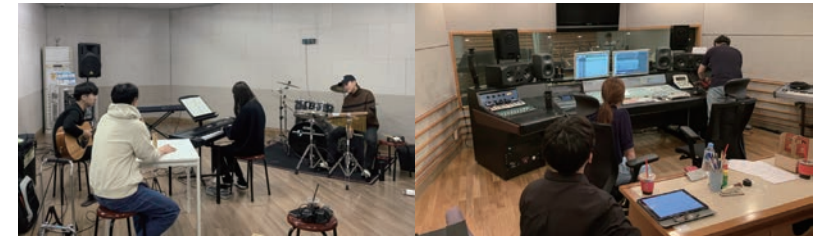
#13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사업명_ 청푸치노(청소년의 푸른 가치를 노래하는) 프로젝트



#결애(愛)
#서로를 보듬는 삶
#청푸치노



아픔 곁에 머무는 '결애(愛)'는 문학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협동조합이다. 예술이라는 도구로 사람들의 상처를 마중한다. 결애의 시작은 2008년 인문학 놀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의 의지로 진행된 '배꼽 빠지는 도서관'부터다. 속 시원히 웃고 갈 수 있는 공간에서 지역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하룻밤', '드림워크숍', '배꼽 밴드', '기자교실', '인문학 교실'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워크숍을 꾸려왔다. 그로부터 7년 후 '배꼽 빠지는 도서관'은 '결애'로 이름을 바꿨다. 그간의 체험을 더 치열하고 정직하게 담아내고자 문화예술협동조합으로 변신한 것. 예술가의 창작 작업을 지지하고 그들의 예술치유 에너지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삶을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동네방네 그림책' 시리즈로 지역 내 세대 간 소통을 다루고 '시 테라피'로 자기치유를 응원하던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의 2019년 새로운 청푸치노 프로젝트는 '음악'이었다. '청소년의 푸른 가치를 노래한다'는 뜻을 품은 청푸치노가 음악을 매개로 어떤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지, 청소년 스스로를 긍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경험하는 게 목표였다. 시대와 세대에 발맞춘 음원제작과 유통을 아우른 모든 시간이 예술치료 과정이기도 했다.

○ 레벨업 성과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기간 동안 청푸치노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경험했다. 8월과 9월에는 트랙별 작곡 방향을 논의하고 녹음실 렌탈 및 합주 일정을 조율하는 사전 워크숍을 마치고, 10월 한 달 동안 곡 작업을 한 뒤, 11월과 12월 세션과 함께 녹음, 믹싱, 마스터링에 착수했다. 지원받은 500만 원은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가 제작할 총 3곡의 작곡, 작사, 편곡, 믹싱&마스터링, 보컬을 포함한 세션, 합주실, 스튜디오, 엔지니어 비용으로 사용됐다. 사업기간 내에 3곡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녹음 및 후작업을 진행, 발매까지 내다보고 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는 이 작업을 통해 '타인'이란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나 서로의 내면을 함부로 침투하지 않는 부드러운 소통을 이야기한다. 음악으로 풀어내어 오해를 이해와 공감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탄생시킨 노래가 '통증' 외 2곡이다. 곧 발매될 청푸치노의 음원과 더불어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나와 너를 우리로 확장시키는 청푸치노의 또 다른 행보를 기대해본다.



전통공예 재해석이 가져온 수익창출

#14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사업명 _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센터
#맞춤형 학습
#체험학습

2012년, 마을기업에 선정된 성북구 중암동의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센터다. 20여명의 조합원이 출자해 공간을 마련하고, 동네 주민자치위의 기부로 살림살이까지 장만한 뒤 꾸준히 아이들과 만나왔다. 인근 대학교 재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과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를 아우른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지도로 학습 적응력과 소속감, 자존감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안정적 운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민간 돌봄센터라서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까닭이다. 월 5만~15만 원의 수강료를 책정해 두긴 했으나 형편상 납부하지 못하는 참여자가 빈번하다. 돌봄의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양육자'라고 생각하는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은 그래서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떠올렸다. 본격적으로 안정적 재정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 레벨업 성과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은 전통공예품을 현대적인 감각과 접목시켜 전통을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지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체험교실을 통해 전통공예의 문턱을 낮추는 게 목표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공예품 판매 그리고 한지공예 강사 양성을 통한 수익창출. 어느 때보다도 지원사업에 집중한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은 가장 먼저 1회 3시간 동안 진행되는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생명의복지관 바자회, 길음·안암주민센터, 성북여성능력개발원에서 총 12회 운영, 300명과 만났다. 또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3명의 수강생과 한지공예 강사 자격증 준비반 과정을 6회, 자격증 소지자 연구반 모임을 14회 가졌다. 정릉에서 월1회 열리는 <개울장터>, 지역 내 바자회, 성북구청 사회경제과에서 주최하는 부스에서 한지공예품 300개도 판매했다.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부침 없이 내달린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은 수익창출은 물론 능동적인 전통문화 계승,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마저 거머쥐었다.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익창출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15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브랜드’로 가는 발판이 되다

사업명 _ 공예품 체험용 키트(DIY) 개발 및 시제품



#전통공예
#DIY 키트

#15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2013년 설립된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은 2016년 11월, 지역 내 전통공예 장인 및 마을주인과 함께 마을기업을 설립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북촌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마을학교와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을의 비전과 변화 중심점이자 촉매제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창구로 존재한다. 북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함께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북촌 방문 내외국인, 각 학교 학생들에게 전통공예를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전통공예를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프로그램의 수요를 감당할 전문강사가 부족할 뿐. 2017년부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공예 강사 양성과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설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DIY 키트’ 개발이었다. 수입구조가 약한 협동조합에 사업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창출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도 함께였다.



○ 레벨업 성과

전통공예체험 프로그램이 키트로 구성된다면 전국 어디서든 키트를 활용한 전통공예 수업이 가능하며, 방과후 교사와 체험학습강사 배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터였다. 시간이 촉박해 미처 전통공예를 체험하지 못한 국내의 방문자도 키트만 구입하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했다. 그것은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이 단순한 조합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충분했다.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7월부터 11월까지 키트 구성품을 선정하고, 재료를 구입한 후, 키트화 작업에 돌입, 포장 디자인까지 포함한 키트 매뉴얼 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초등학교생에게 체험할 한지키트(손거울 제작) 500개, 1대 1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매듭키트 450개가 완성됐다. 특히 목공예(탈 제작)키트는 시연 및 소개 동영상상을 제작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품포장 패키지 개발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16 (주)아임우드



사업명 _ 심상무십자가 브랜드화



#직업진로체험교육
#심상무십자가

#16 (주)아임우드

목공을 전문으로 하는 (주)아임우드는 2011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주로 사무용 가구와 생활가구의 주문제작을 하며, 주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체험교육을 비롯해 일반인, 직장인 대상의 목공체험과 교육, 목공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왔다.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 (주)아임우드는 기존의 주문제작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목공을 활용해 상시 판매가 가능한 상품 개발을 추진해 '심상무십자가'를 완성했다. '심상무십자가'는 (주)아임우드의 대표이자 문화재수리기능보유자 겸 우수숙련기술자인 심상무 대표가 제작한 십자가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십자가 형태를 유지하는 입체형이라는 특징점을 지녔다. 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기념품 용도인 만큼 높은 가격대와 선물에 걸 맞는 상품 포장 패키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신규 개발한 상품에 레벨업 지원사업으로 개발한 패키지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확보했다.

○ 레벨업 성과

(주)아임우드는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총 8종 700여개의 상품 포장 패키지 제작과 온라인 매장 입점이 그것. 결과적으로 (주)아임우드가 지원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성과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총 10종, 1000개의 상품 포장 패키지를 제작했으며, 스마트스토어, 가톨릭출판사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몰, G마켓, 옥션 등 온라인매장뿐만 아니라 가톨릭출판사 오프라인 직영점 7곳에 입점했다. 전시회와 페스티벌에 참가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얻었다. 매출 효과도 발생해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이 진행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 상품만으로 9,750,000원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여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7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조합원과 만든 C.I로 마을기업의 전환점을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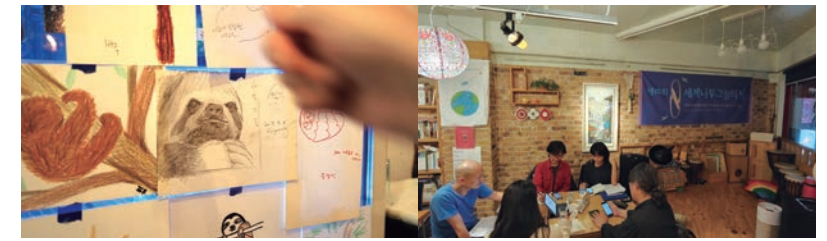
사업명 _ 우리동네나무그늘 새로운 C.I 개발 및 홍보물 디자인

Story

#대안공간
#마을축제
#생활문화공동체

#17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우리동네
나무그늘



새로운 C.I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과의 관계망 확장을 통한 마을공동체와 협동과 상생의 지역순환경제생태계에 집중하는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은 대안공간, 문화화아리 활동, 마을축제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연대와 공공의 가치를 다져왔다. 동아리와 주민모임, 인큐베이팅 카페, 네트워크의 공간인 우리동네나무그늘을 통해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2013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인증하는 '마을기업' 지정으로 이어졌다.

2019년에는 지역 주민과 지역기반의 다양한 분야 활동가를 주 고객층으로 둔 조합 수익구조 안정화에 힘쓰며, 조합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환경 이슈를 알리고 실천하는 친환경 공간 성격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그것은 햇수로 9년을 맞이한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이 맞이할 또 한 번의 도약이었다. 내외부의 인식 전환은 필수였다. 그때 설립 당시 제작한 캘리그래피 형식의 C.I 교체가 화두로 떠올랐다. C.I가 식상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 젊은 세대의 감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고객의 토로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기회이기도 했다.

○ 레벨업 성과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커뮤니티 카페인 우리동네나무그늘의 새로운 C.I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안정적 매출을 얻는 게 최우선 목표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유지하는 힘을 키우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신규 조합원과 기존 조합원의 결속을 강화시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 산산이었다.

환경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기반으로 총 6회의 오프라인 회의가 진행됐고,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C.I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다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친근함과 귀엽, 휴식을 연상시키는 나무늘보 이미지와 조합원, 다양성, 나무, 재미, 카페를 담은 키워드로 워드마크, 심볼마크, 캐릭터 디자인 시안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후 새로운 C.I가 반영된 명함, 텀블러, 현수막, 리플릿 등 총 10종의 홍보물이 완성됐다.

레벨업 지원사업의 결과로 가장 먼저 신·구 조합원의 나이대와 방문 빈도수가 달라졌으며, 그것은 전년 대비 월별 방문객 및 매출 증가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고객, 특히 2030 신규 조합원의 만족도가 컸다. 가장 큰 성과는 C.I 디자인 제작 과정을 함께한 조합원의 자부심이었다. 이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대안을 만들며 힘을 모으는 공간, 우리동네나무그늘의 가슴 뛰는 전환점이 되었다.



#18

중국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지속 가능한 환경과
고객 편익을 실천하다

사업명_ 친환경 상품포장재 개발



#브랜드 개발
#친환경 상품포장재

#18 중국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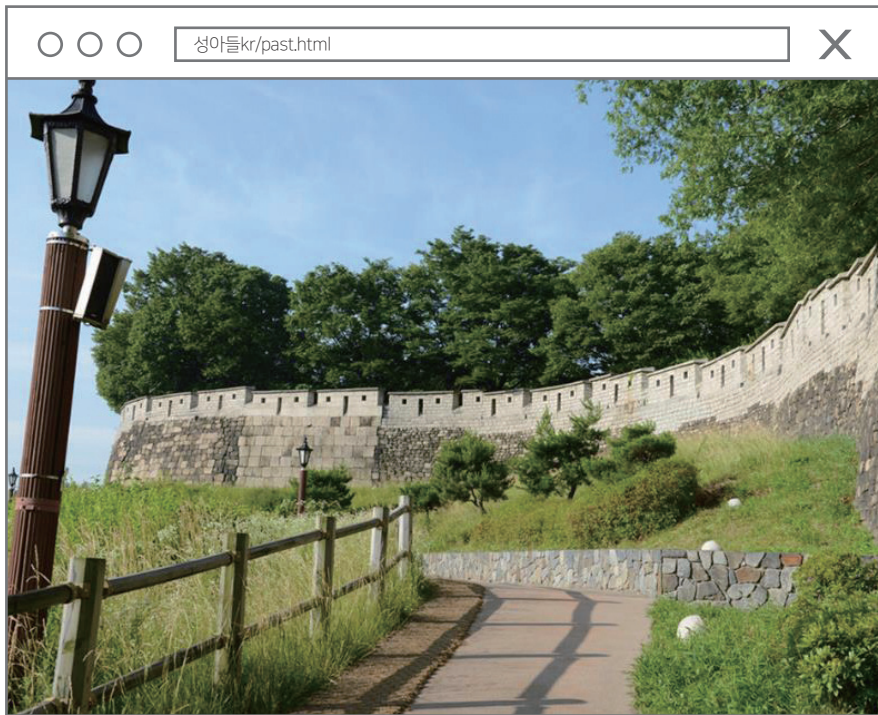
중국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은 현재의 협동조합법이 생겨나기 전인 2003년에 만들어진 중국제일시장 상인회가 전신이다. 경쟁하기 어려운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고객의 니즈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데 임대료마저 오르기 시작할 때였다. 허덕이며 내달려도 발맞추기 힘든 상황에 전통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각자도생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상인회는 2012년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10월 아리청정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이후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내고, B2B거래도 시작했다. 시장 천장을 아케이드로 바꾸는가 하면,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건물을 짓고 그 2층에 고객심터 카페까지 열었다. 혼자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도전과 모험. 대형마트를 두려워하거나 싸우려 하기보다 상생하려고 노력했고 그 어떤 변화도 능동적으로 받아 안았다. 친환경 상품포장재 개발을 고민하던 것도 그 연장선의 실천이었다.



○ 레벨업 성과

연일 불거진 환경문제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아리청정협동조합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포함한 과도한 포장재를 지양하고 분리수거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나섰다. 주요 상품 중 하나인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의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아리청정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도 함께 의뢰했다.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수차례의 협의 끝에 아리청정협동조합에 맞춤형 박스를 개발했다. 지원받은 500만 원은 1,000세트 분량의 포장제작 비용과 친환경 포장지 및 디자인 비용으로 사용됐다. 아리청정협동조합이 선택한 '친환경'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고객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마저 아우른 전략이었다. 고객과 환경을 생각하는 아리청정협동조합의 이미지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리라고 예상된다. '경쟁'을 '상생'으로 대체하고, '개인'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그들이기에 가능한 성장일 것이다.



#19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

실용적이고 접근성 뛰어난 업무 핵심 플랫폼 구축



사업명 _ 역사문화 탐방객 접수용 홈페이지 보강 및 자동접속 앱 개발

Story

#역사문화단체
#성북역사문화탐방

2012년, 성북동에 거주하는 몇몇 엄마들이 자녀와 함께 동네 문화재를 둘러보던 봉사 단체가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외부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지자 한 발짝 더 나아간 본격적인 역사문화단체를 조직했고 그것이 2013년 설립된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이다. 성북동의 문화와 역사가 스민 훈민정음, 님의 침묵 글자 탁본과 누에고치 실뽕기 등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에코백 만들기와 같은 성인 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하는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은, 특히 살아있는 근대사를 체험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대응하는 민간 차원의 교육을 강조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탐방객은 2018년을 분기점으로 천 명을 넘어섰다. 2019년에 진행할 프로그램 '2019년 성북역사문화탐방'을 원활히 운영하기엔 기존의 관리 시스템은 역부족이었다. 개발된 기념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탐방객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정보를 양방향 교환으로 바꿀 때였다. 해설사들에게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 탐방객에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이 필요했다.

탐방객 접수용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자동접속 앱 개발을 통해 안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 레벨업 성과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은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탐방객 접수용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자동접속 앱 개발에 착수했다. 홈페이지에서 효용 없는 기능을 삭제하고 마을기업에서 보유 중인 상품 판매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분산된 해설사 관리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는가 하면, 고객이 홈페이지 자동 접속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PC와 다른 모바일(안드로이드, iOS)에서 접속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기획·개발한 유료탐방상품 예약 및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홍보, 소개, 판매, 예약업무가 활성화됐다. 상품별 옵션기능 설정으로 상품의 품격과 가치가 차별화되고, 체험, 기념상품, 먹거리, 편의시설이용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상품 운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유료탐방 상품 판매를 활성화시켰고 매출 증대로 이어졌으며, 즐기고 배우고 체험하는 차별화된 탐방상품 개발과 운영으로 귀결되었다. 상품선택과 예약결제 원스톱 시스템,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효율적인 해설사 관리업무, 역사탐방과 기념상품 판매의 안정적 기반 확보도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였다.



Story

#20 협동조합 캠퍼

변화에 유연한 태도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20

협동조합 캠퍼

사업명 _ 마을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운영



#지역사회 공헌
#지속적인 소통
#50여종의 워크북



일터가 놀이터처럼 재밌기를 바라는 캠퍼는 학습 또한 놀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

체험학습과 체험여행을 준비하고 경험하며 참여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캠퍼는 2013년, 체험학습 현장 노하우를 가진 강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그로 인한 지역사회 공헌이 캠퍼의 비전이다.

일터가 놀이터처럼 재밌기를 바라는 그들은 학습 또한 놀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퍼만의 프로그램이 교과와 연계된 체험학습에 그치지 않는 이유이자, 가족 대상 체험여행 및 인문학 강의가 개발된 토대이기도 하다. 협동조합 캠퍼는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한다. 때문에 강사 교육과 프로그램 기획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것이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수업 매뉴얼을 만들어 시연하며 50여종의 워크북을 자체 개발한 동력이다. 2014년 마을기업에 선정돼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에게 역사문화진로 체험강사 교육기회를 제공한 캠퍼는 2019년, 이전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에 돌입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업종 확대와 학교교육 현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강사 양성이 절실해진 까닭이었다.

○ 레벨업 성과

협동조합 캠퍼는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마을기업의 위상을 품고, 지역공동체와 연대를 통한 마을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이 시작된 7월과 8월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을 준비하고 9월과 10월엔 과정을 운영했다. 다년간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강의를 진행한 타기관과 실습 위주의 6회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후 6회차 총 18시간 동안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캠퍼 강사진 19명이 모두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연결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020년에는 후속작업으로 사회적경제 심화학습과 청소년 대상 자체 커리큘럼 기획을 계획 중이며, 서초구협동조합협의회 교육부문 협업 캠프 내 사회적경제 부문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

바늘한땀협동조합

X



생활 패션 한복 허리치마

바늘한땀협동조합

생활 패션 한복 허리치마

장바구니

구매하기

☰

+

전통과 현대를 잇는 유통채널과 생활한복의 콜라보

#21 바늘한땀협동조합

사업명_ 생활 패션 한복 허리치마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바늘과 실과 천
#한글행주앞치마

#21 바늘한땀협동조합

얇고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강인한 바늘. 그것을 쥐고 시간과 기억 그리고 상처를 한 땀 한 땀 감치며 만들어낸 작품, 그 속에 깃든 삶이 바늘한땀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전부다. 사람 지난 자리에 길이 생기듯 바늘 지난 자리에 사랑과 희망이 돋기를 바란다. 순간순간 몰입하지 않으면 금세 티가 나서 매순간 깨어있어야 하는 작업임에도 바늘한땀협동조합이 쉬이 지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늘과 실과 천만 있으면 조각난 행복조차도 멋지게 이을 수 있다는 바늘한땀협동조합의 작품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전통에다 바느질이라니 자칫 고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통의 미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결합된 아름다운 디자인은 그 자체로 고급스럽다. 전통 저고리와 연꽃 문양 원형패치를 접목한 목걸이 형태의 앞치마, 훈민정음이 새겨진 행주가 부착된 한글행주앞치마, 복주머니 파우치가 그 대표적인 예. 끊임없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일상으로 스며드는 한복, 전통을 살리는 수작업 소품을 만드는 바늘한땀협동조합은 전통과 현대를 디자인하는 장인임에 틀림없다. 다만 소비자화 만날 폭넓은 기회, 문턱 낮은 유통채널의 부재가 아쉽다.

shoppingmall

○○○

생활 패션 한복 허리치마



2018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우리꽃 허리치마는 어떤 양장 옷과도 어울리는 생활 패션 한복이다.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형태의 현대적 디자인을 차용, 전통적인 허리치마에 대입해 더욱 멋스럽다. 시스루 형태의 겹치마와 비침 없는 속치마의 조합으로 단독 착용 혹은 레이어드 착용이 가능하며, 허리 부근 벨크로를 부착해 끈과 함께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행복앞치마

내 몸을 편안하게! 목화송이의 행복 앞치
마는 별도의 어깨끈이나 버클 없이 원피
스처럼 입는 스타일입니다.

장바구니

구매했다



공격적 마케팅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처 확장의 필요성



사업명 행복앞치마 온라인 쇼핑몰 입점

#22

목화송이협동조합



#친환경 바느질
#면 100%

#22 목화|승이|협동조합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는 목화송이협동조합은 한살림 조합원들이 모여 결성한 워커즈 콜렉티브가 발전해 이룬 사업체다.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2013년에는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그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이른바 친환경 바느질을 모토로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천을 소재로 면생리대, 면행주, 장바구니, 에코백, 앞치마, 수저집, 돗자리 등 25가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형광, 무표백, 면 100%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식약처 허가까지 받았다. 목화송이협동조합의 변별성은 기업의 가치를 담았던 실천에서 드러난다. 한 제품을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여러 번 박음질하는가 하면, 빠듯한 가게 살림에도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적정 가격을 유지하려는 것,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반제품 판매가 그 방증이다. 세련된 디자인, 꼼꼼한 바느질,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성장한 목화송이협동조합은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2017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나가기가 마냥 쉽진 않다. 온라인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고용 증가, 경영개선 등의 경제적 성과를 포함한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기대하며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행복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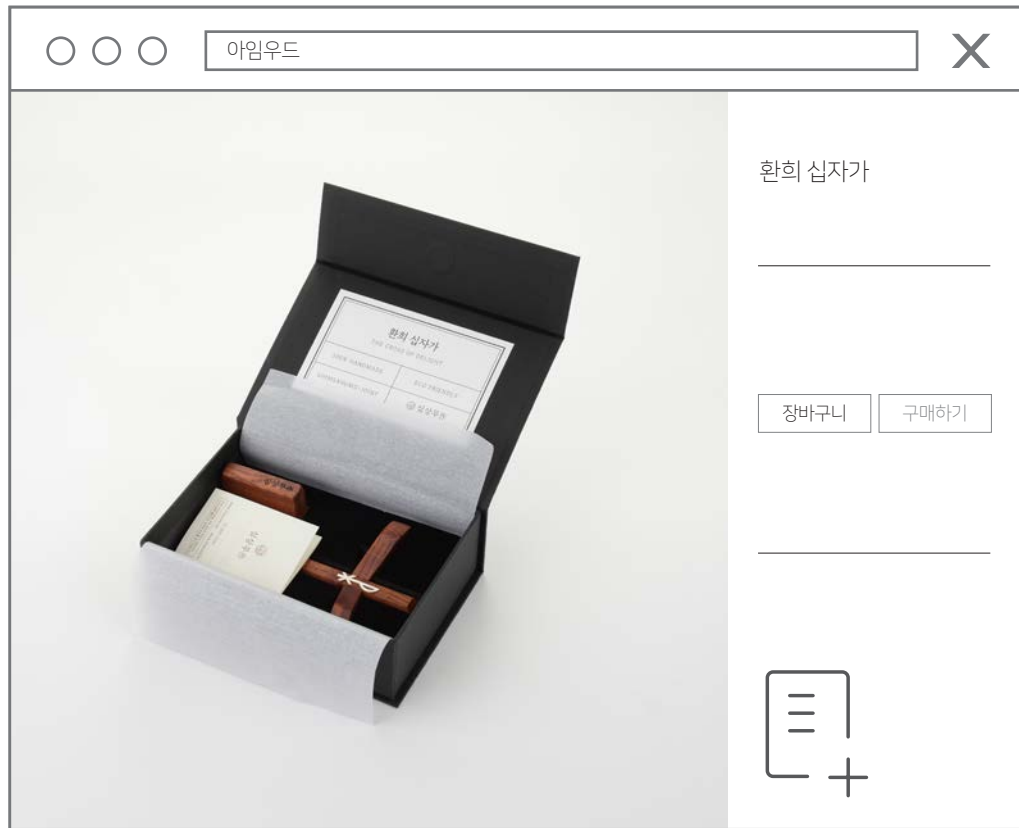
목화송이의 행복앞치마는 먼 100%(리넨, 옥스퍼드지) 제품으로, 별도의 어깨끈 없이 원피스처럼 입는 스타일이다. 가로 102cm, 세로 89cm 한 사이즈이며(88까지 착용 가능), 패턴에 따라 베이지들꽃부터 밤색들꽃, 올리비아베이지, 들국화, 동물농장까지 총 5가지 디자인이 있다. 장시간 착용해도 어깨에 무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양 옆에 깊은 주머니가 있어 소지품을 보관하기 편리하다. 왼쪽에 있는 단추 3개를 오픈하면 입고 벗기도 편하다. 원피스 형태라서 앞치마 외에도 작업복이나 외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3 베블리협동조합



사업명_오가닉 광목 인형 토블리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염원 깃든 탁상용 손십자가,
세상에 업로드되다

#24

(주)아임우드

사업명 _ 탁상용 손십자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

Story

#도심 속 목공마을
#탁상용 손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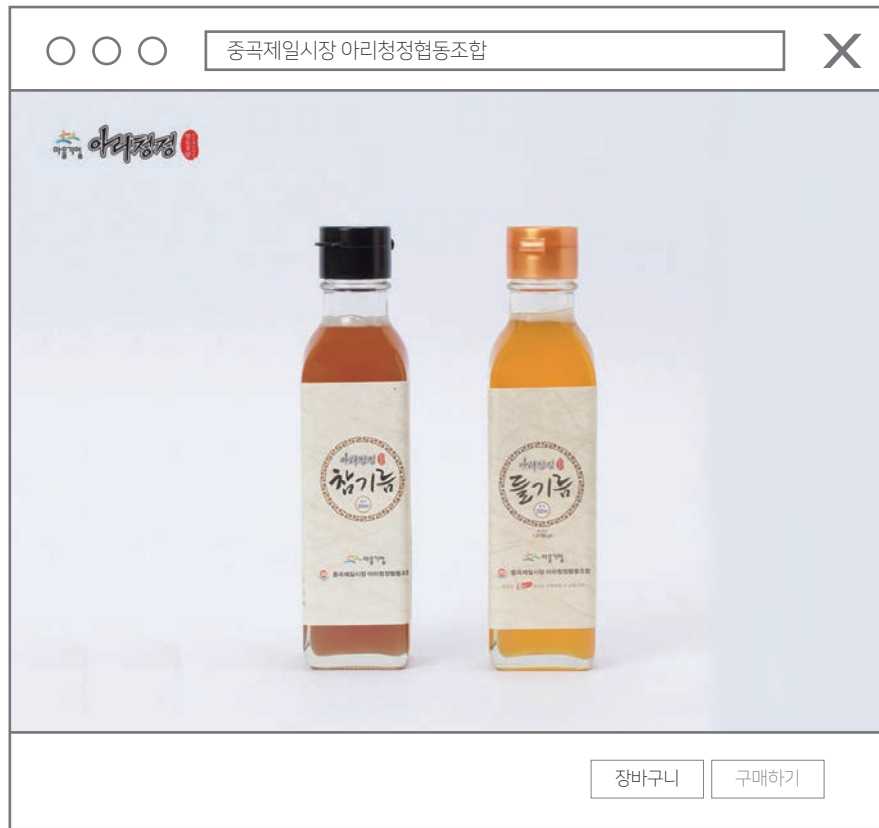
아임우드(I am Wood), 그것은 선언이다. 오랜 시절 제 자리에서 삶을 견딘, 어떤 순간이든 다양한 형태로 제 몫을 다하는 우직하면서도 유연한, 나무 같은 존재라는 고백 혹은 바람이다. 도심 속 목공마을을 표방하는 (주)아임우드 심상무 대표의 작업이 나무와 목수 사이의 교감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제품을 넘어서 예술에 비견되는 근거일 테다. 심 대표와 직원들은 나무와 수년을 호흡하며, 누구라도 나무와 교감할 수 있도록 늘 준비했다. 당연하게도 실용적 용도만큼이나 의미를 담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다. 단적으로 (주)아임우드에서 만든 탁상용 손십자가는 십자가의 지향성, 기도와 목상이 물적 욕구를 넘어 '기도의 참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성찰'하도록 담아냈다. 작업 시 기원한 행복이 원목 향기처럼 베어 나와 흐르기를 바라는 (주)아임우드. 그래서 그들에게 탁상용 손십자가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 중요했다. 재미와 열정으로 지나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손십자가가 본격적인 도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24 (주)아임우드

탁상용 십자가



한쪽 팔은 위, 한쪽 팔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으며 자석을 삽입해 탈부착이 가능한 탁상용 십자가이다. 오른쪽 방향은 하늘을 왼 방향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리스도상을 십자가에 더해 나무 십자가를 더 돋보이게 한다. 참죽나무의 붉은색으로 희생과 구원을 표현했으며, 중심축을 다각(숫자 6이 지닌 온전함을 향한 균형상태를 상징하는 6각)으로 제작돼 다른 십자가와 차별되고 실용성을 더했다. 기도할 때 받침대에 세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십자가만 분리해 손에 잡고 기도할 수도 있다. 십자가와 받침대는 강력한 자석이 부착되어 충분히 지지되도록 튼튼하고, 6각의 십자가는 손의 감촉과 부담을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잡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



#25

중곡제일시장 아리청정협동조합

상생으로 얻은 시그니처 제품에
맞춤한 지원



사업명 _ 100% 저온압착 국내산 참기름 들기름 온라인 쇼핑몰 입점

#원원전략
#‘경쟁’을 ‘상생’으로

2012년 서울시 마을기업에 선정되고 이듬해 설립된 아리청정협동조합은 5년여 동안 자신만의 독자 브랜드로 고객과 만나왔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기엔 상생의 온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대형마트와 날카로운 경쟁이 아닌 화합의 길을 고민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서로의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가능했다. 청과물과 생선을 대형마트에서 양보하며 상생의 서사를 이끌었고 이는 반목하는 상권의 본보기가 되었다. 흔한 파이 빼앗기가 아닌 아리청정협동조합과 대형마트의 윈윈전략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는 선의의 경쟁은 아리청정협동조합을 더욱 도전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시그니처 제품, 저온압착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귀결됐다. 아리청정협동조합에게 필요한 건 ‘경쟁’을 ‘상생’으로 전환해 거머쥔 제품을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리는 작업이었다.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이 제안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은 그들에게 어느 때보다 맞춤형 지원이었다.

	<p>100% 저온압착 국내산 참기름 들기름 ○ ○ ○</p> <p>건강한 먹거리를 지향, 소비자가 중점을 두고 살피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짠 참기름과 들기름이다. 고소하고 진한 맛을 살리기 위해 참깨 혹은 들깨를 잘 씻어 말리고 고열로 볶아 기계에 넣어 압착하는 기존의 기름과 달리, 8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수분만 빼는 정도로 볶아 압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온에서 분해됐을 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인체 유해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다. 맑은 색과 산뜻한 고유의 향이 인상적인 제품이다.</p>
---	---

도시마을협동조합은 해충 없는 마을 만들기애 앞장서고 있는 해충방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 날벌레를 포집하는 '사라세니아 UV LED 포충기'와 바퀴나 개미 등 기어 다니는 해충의 겔타입 독먹이제를 놓아두는 패스트랩이 있다. 모두 특허청에 등록돼 있고 특히 사라세니아는 전기 안전을 비롯한 모든 인증을 받았다. 그 외에도 HACCP컨설팅 사업을 병행한다. 먹거리 안전이 더욱더 중요해진 요즘 생산-제조-유통의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를 처음 인증을 받거나 재인증 받으려는 공장의 인증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의 학교마을 조직과 연계해 방과후 및 자율학기제 수업으로 해충방제교육프로그램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체, 공공기관은 물론 어린이집, 식당, 병원 등 어디든 달려가 전문 교육을 받은 현장 전문가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서 고객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았던 도시마을협동조합. 2015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한 그들은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결심했다.



○○○

도시마을협동조합

X

SARRACENIA

UV LED포충기

사라세니아 모기퇴치 날벌레 끈끈이

UV LED 포충기

해충방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 조합입니다. 소독과 해충방제를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로 고객을 우선시합니다.

장바구니

구매하기

전문가가 만든 합리적 가격의
해충방제 상품 업로드

#26

도
시
마
을
협
동
조
합

사업명 _ 사라세니아 UV LED 포충기 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라세니아 UV LED 포충기

사라세니아 UV LED 포충기는 벽면에 액자를 걸 듯이 걸어놓고 전원만 연결하면 설치가 끝나는 간편한 포충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친환경적인 약제를 사용해, 파리와 모기, 나방 등 날아오는 해충을 동시에 포획한다. 두께 3.5c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감각을 살렸다. 스틸 재질이라 고급스럽고 튼튼하며 다양한 컬러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도 넓다.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식당, 식품공장, 병원, 학교, 가정, 화장실 등 위생이 필요한 곳이라면 실내의 어느 곳이라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냄새가 전혀 없으며 소리가 없이 벌레를 잡아낸다. 긴 수명의 UV LED 사용으로 잦은 램프 교체가 필요 없고, 한달 1,000원 정도의 전기료로 경제적인 포충기이다. 제품은 포충기 본체 1EA(얇판/툇판), 12V 어댑터 1EA, 끈끈이 시트 3EA, 설명서로 구성돼 있다.

#조청, 고추장, 한과
#건강한 먹거리

2018년 7월, 전통적 농업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잇는 옛고을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위해 수입원을 찾던 강서구 양천향교 여성유도회 구성원들이 궁리 끝에 찾은 수입원, 조청을 만들고부터다. 서울에서 지은 경복궁쌀이 남는 다기에 안타까워하다 쌀로 만들 수 있는 조청, 고추장, 한과 등을 떠올렸던 게 시작이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한과세트와 조청을 포함한 강서의 경복궁쌀과 쑥, 깨, 유자, 백년초 등의 국산 재료로 만든 옛고을협동조합의 먹거리는 웰빙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만든 제품에 추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능동적 소비를 지양하며, 재생원료이거나 지속가능한 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선호하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였다. 건강한 먹거리로 이웃에 배타적인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옛고을협동조합.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나 누구든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양하고 대중적인 판매처, 온라인 쇼핑몰이었다.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였다.

경복궁쌀 초청 고추장 선물세트

국내산 쌀 80%와 국내산 엿기름 20%로 만든 초청, 그렇게 만든 화학첨가물을 섞지 않은 초청 13%와 서울에서 나는 경복궁 찹쌀 13%, 국내산 고춧가루 31%, 국내산 메주 15%, 국내산 천일염 13%, 국내산 엿기름 15%로 만든 고추장을 묶은 선물세트다. 잘 숙성된 빛깔이 남다른 엿고추장협동조합 고추장은 어떤 장을 쓰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한식 요리에 맞춤형 정직한 먹거리다.

“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은 컨소시엄을 이루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마을 기업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에 비해 협업은 마음과 시간을 모두 맞춰야 하는 일이라 몇 배의 어려움이 따랐어요. 물론 보람은 훨씬 더 컸고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자연스레 네트워크가 형성된 점에 특히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5개 기업이 모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막상 사업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목화송이협동조합 **한경아** 대표

에필로그

“이번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민들레워커에 없던 의류브랜드 ‘본연’을 론칭했다는 것이예요. 이를 알릴 수 있는 6종의 의류 샘플작업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다만, 봉제작업의 특성상 완성품 제작까지 완전히 숙련되는 데 통상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데 반해 저희는 사업 기간 동안 이 모든 걸 끝내야 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컨소시엄 방식 역시 취지는 좋지만 시너지를 얻는 기간으로는 조금 짧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들레워커협동조합 **김혜숙** 대표

“저희 협동조합 켄터는 레벨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진행했어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강사 경험이 많은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메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간접경험 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간 인문학 강의와 초중등 대상 현장체험학습(과학관, 박물관, 유적지 등)을 주로 해오던 켄터에 ‘사회적경제교실’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생김으로써 이번 사업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과 협동조합 설립 당시의 첫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던 점도 좋았고요. 지원사업 진행 중에 서초구사회적경제생태조성단을 통해 동덕여고 사회적경제교실 수업을 제안 받았는데, 교육이 끝나기 전이라 진행 면에서 미숙했던 점이 많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후속 세미나와 자체 커리큘럼을 위한 심화과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켄터 **이진** 대표

“해방촌 아이들의 저녁식사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식당’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육공동체 사업을 해오면서 방과 후 아이들의 저녁식사가 불안정하게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목도한 까닭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린이 · 청소년 대상 먹거리기반 돌봄사업은 이런 바람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주었는데요.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식당으로서 가능성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사리협동조합 **남기문** 대표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은 서울에서 종로구 다음으로 역사문화재가 많은 성북구의 소중한 자산을 역사문화탐방해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전화로 일일이 응대하던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급기야 탐방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지요. 다행히 레벨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어요. 덕분에 안정세를 찾아 기존 탐방을 상품화하는 작업을 거쳐 마을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조합은 유료 상품 개발 업무에 폭 빠져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곧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어 이벤트와 체험이 있는 탐방코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주겠지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협동조합 **박경석** 조합원

epilogue

“

“문턱없는세상협동조합은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 메뉴가 아닌 친환경 유기농 건강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개발하는 것부터 배달까지 식재료비와 인건비로 인해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즈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발굴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노력과 함께 지원사업을 통한 공적자금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턱없는세상협동조합 **고영란** 상임이사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사업을 실행해준 덕분에 먹거리기반 전략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비전문가 마을의 필요와 수요를 채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적었는데, 같은 분야에 몸담은 이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었던 시간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리알찬협동조합 **김숙영** 대표

“2018년에 마을기업끼리 협업하는 공동기획사업의 경험이 이번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에서 저희 조합이 컨소시엄을 꾸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을기업 혼자였다면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과들이 지역 내 다른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 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가능했죠. 사전 홍보활동 미흡이나 사업 초기 활동계획 지연,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변 어르신들을 돌보고, 마을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이청연** 대표

마을 공유주방으로 활용하던 공간이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스페이스 옴’이라는 HACCP 인증이 가능한 주방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레벨업 되었어요. 단순히 공간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쓸모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까지 레벨업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만이 아니라 식품제조 분야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센터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셈이지요.”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박꽃별** 대표

“센터의 지원사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먹거리 · 돌봄 관련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맡아주었다면, 홍보활동과 시범사업 장소 등에 대한 고민은 마을공동체에서 담을 구했죠. 결과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꽃망우리의 지역 어린이 돌봄사업은 센터의 지원사업과 마을기업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의 협업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꽃망우리협동조합 **박영윤** 이사



”

더 자세히 안내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지원사업



2019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2019 Cycle

연도별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 전략과 내용, 주요 실적

2019 마을기업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2020 마을기업 지원사업 계획

건강한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설립지원을 위탁받아 수행해온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매년 마을기업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 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의 정체 성에 대한 고민을 늘 바탕에 두고 건강한 마을기업을 창업하는 한편 기존 마을기업 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가동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19년에는 공급자 주도형 기업 창업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발적인 마을기업 진입 사례 외에 전략적으로 서울시청 및 국정과제 등과 같이 지역 수요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육성,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실적

(단위: 건, %)

구분	항목	목표	실적	달성률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신규 발굴 및 교육	25	51	204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공모 지원	8	10	125
	레벨업 공모 지원	25	39	156



2019년 핵심과제 및 중점추진사

- 지역 기반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순환경제 형성에 일조하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주체 형성
-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의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여, 마을기업 활성화의 계기 마련
-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와 성장 지속 지원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 내역

신규 발굴 및 교육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설립 지원
예비(5개 기업), 신규(6개 기업), 재지정(5개 기업), 고도화(4개 기업)
 - 마을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추진
'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센터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1회),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자 교육(2회), 설립 후 직무능력 교육(11회), 신규마을기업 신청희망 기업 교육(1회), 재지정 마을기업 신청 희망 기업 교육(1회)
2019년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기업 현지조사(28개) 및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기업 현지조사(8개)
 - 행정안전부 각종 행사 참여 및 지원
제2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4개 기업), 마을기업인의 날(1회), 시·도 중간지원기관 간담회(4회) 등

마을기업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공모 지원

- 자치구 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 프로세스 구축 등과 같은 협업화 모델 발굴
- 지역별 확산 가능한 마을기반 사업의 규모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책사업 및 서울시정과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역주민 참여와 관계망 확충을 통한 사업기획 및 실행가능한 컨소시엄 선정 지원
- (주제1)정책연계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커뮤니티케어), (주제2)지역돌봄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혁신교육 지구, 노인돌봄), (자유)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마을기반형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 지원사업 전 사전진단 및 선정 후 공동워크숍, 현장 모니터링, 사업 컨설팅을 수행하여 사업 효과 제고
- 지역기반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 돌봄 분야 모델 수립 지원
-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 대상 급·간식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대상 기업영업력 강화 및 지원사업 기간 동안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추진
- 기존에 추진하던 먹거리 사업을 어린이 특화 식당, 식당 매장을 활용한 어린이 대상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지역 내 맞벌이 가정 및 위기가정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먹거리 돌봄의 가능성 확인 및 기능 고도화 지원
- 지원사업 전 사전진단 및 선정 후 공동워크숍, 현장모니터링, 기업별 특화 교육 및 피어 컨설팅 추진

레벨업 지원사업 공모 지원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공모 및 관리
- 행정안전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9개 기업 지원
- 마을기업의 경영역량 강화(홍보마케팅 분야 / 신규사업모델 개발 분야)를 위한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10개 기업), 행정안전부-(주)이베이크리아 협력사업으로 G마켓, 옥션에 마을기업 제품 입점 컨설팅 및 입점 (7개 기업) 지원
- 마을기업 경영 및 지원사업 참여 전 최소 1회 이상 기업에 방문하여 현안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센터 컨설팅 사업 등 연계

추진 성과

- 지역주민의 필요와 서울시정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 NGO, 복지관,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업 사업 지원 수행으로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과 지역 내 관계망 확장 및 협업 구조 마련
- 기업이 지원사업비를 받는 것만이 아닌, 사업 참여 전 전문가와 실무자의 현장진단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를 재설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
- 기 설립된 기업이 지역의제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과 관계망을 기반으로 기획·개발·실행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직접 이용·구매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에 기여

개선 및 건의사항

- 설립 기간이 오래 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변경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 마을기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는 업무 필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정관에 따른 운영, 조직관리방법 등의 노하우 및 운영체계전수 과정 필요
- 대도시인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완화하는 지역의제 해결형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 및 이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 지역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 추가 필요
- 마을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주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발굴을 통해 지역 내 마을기업이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책 마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과 다양한 지역 내 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협업사업 활성화

96건의 일정, 마을기업과 함께한 2019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달력에는 유독 많은 일정들로 채워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크고 작은 일정들은 총 96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의 마을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지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의미를 새기며 지나온 걸음걸음을 돌아봅니다.

01 Jan

- 2019년 마을기업 시도지원기관 간담회(행정안전부)
- 2019년 신규 마을기업, 2018년 고도화마을기업 최종 심사(행정안전부)
- 2019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자문회의

02 Feb

- 2019년 신규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최종 선정
- 2019년 통합 사업 설명회

03 Mar

- 2019년 신규신청 마을기업 대상 행정안전부 공통교육(대전 유성호텔)
-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서울시청)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 사업 지원사업 공개 모집

04 Apr

- 2019년 신규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최종 선정 기업 대상 회계지침 교육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모집 공고
- 2019년 마을기업 대상 전문교육(4시간, 재지정 필수, 고도화 가점 분야)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모집공고 설명회 (자치구 지원기관, 기업 대상)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공개 모집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1차 심사(이메일 서면)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1차 심사 통과기업 현장조사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2차 심사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최종 선정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워크숍(기획2, 자유)



05 May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모집 공고
- 2019년 마을기업 대상 전문교육(4시간, 재지정 필수, 고도화 가점 분야)
- 2019년 서울시,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자(공무원, 자치구센터 직원) 교육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모집 공고 참여기업 현지조사(28개)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심사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워크숍(기획1)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최종사업계획 제출 및 협약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추진(~12/10)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06 June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덕수궁 돌담길)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최종심사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_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교육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B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심사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B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결과 공고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B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수행기관-기업 매칭 입점 진행(7개 기업)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사전경영진단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업)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심사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반영 최종사업계획서 작성(기업)

07 July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참여컨소시엄 현장 방문
-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대전, 3일)
- 전국 마을기업 시도 지원기관 워크숍(인천)
-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 마을기업 현장 방문 (마을무지개, 취임 100일 기념)
- 2019년 예비, 신규(신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최종 선정 기업 대상 회계지침 교육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B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수행기관-기업 매칭 입점 진행(7개 기업)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기업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워크숍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기업 사업 추진(~11/29)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기업 모집공고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사전경영진단



08 Aug

-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대상 공통 교육(대전 유성호텔, 행정안전부)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현장 방문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중간보고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검수 및 보완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B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수행기관-기업 매칭 입점 진행(7개 기업)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사전경영진단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심사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기업 협약
- (추가모집)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A형, 프로젝트 비용 지원사업) 선정 기업 사업 추진(~11/29)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참여희망기업 사전경영진단

09 Sep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현장 방문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참여 중간성과공유회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사전경영진단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사전경영진단 보고서 토대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기업)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심사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기업)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워크숍 및 협약식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추진(~12/20)

10 Oct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희망기업 대상 교육(16시간)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희망기업 대상 집체교육(12시간)
-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대전 유성호텔, 2일)
- 마을기업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실무역량강화교육(홍보 마케팅/자가경영진단)



11 Nov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희망기업 대상 교육(16시간)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참여기업 대상 현지 조사
- 2019년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
- 2019년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 사업 종료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중간보고
- 마을기업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실무 역량강화교육 (홍보 마케팅/자가경영진단)

12 Dec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참여기업 대상 서울시 심사
-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사업 종료
- 마을기업 지원사업 통합 성과공유회
-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마을기업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실행 지원사업 종료





연도별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 전략

2015년

- 서울형 마을기업 정책을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수립
-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적합 업종 개발

2016년

- 설립 전 교육의 안정적인 추진 및 서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재설계를 통해 마을기업 발굴 육성의 내실성 강화
- 통합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역-자치구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전략업종 육성 등을 통해 마을기업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2017년

- 사회적경제 자치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강화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주체와 성장 경로에 대한 대안적 모델 개발

2018년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밀착 경영지원 강화
- 대도시형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연도별 마을기업 지원사업 내용

2015년

지정 지원 예비주체 발굴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개시 및 자치구 순회설명회

일상 지원

- 마을기업 운영실태 전수조사 지원(80개 기업)
- 마을기업 네트워킹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선진지 탐방(대구 중간지원조직)

성과 확산 지원

- 마을기업 지원정책 개선 및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적합 업종 발굴
- 59개 기업 인터뷰를 추진, 2012~2014년의 지원정책 효과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적합 업종 발굴
- 전국 마을기업 네트워크 박람회
- 장터 실시 (북촌크리스마스/잠실 풀장)
- 201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촌한옥마을 및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마을기업 인지도 제고 및 전국-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장터 운영

2016년

경영 지원

- 레벨업(level-up) 지원단 운영 및 기획홍보
- 개별 마을기업의 홍보 · 판로 지원 및 업종 간 컨소시엄을 통한 통행 상품 개발 지원
(개별기업 지원 16개, 마을기업 컨소시엄 2개 지원)
- 마을기업 소개 책자 제작(마을기업 스토리, 제품 등)

지정 지원 예비주체 발굴

- 마을기업 설립 전/후 교육
- 마을기업 설립 전 필수교육, 설립 후 교육 6회 추진(1,028명 참여)
- 마을기업 스타트업(start-up) 지원
- 마을기업 예비주체들을 대상으로 사업가능성 및 문제점 진단, 사업계획서 보완, 주력사업 기획 및 수행 지원 등 컨설팅(9개 기업 지원)

일상 지원

-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체험 부스 참여(9/30~10/2, 세종시)
- 희망을심는나무 등 7개 기업 참가, 전시 및 판매활동
- 참여기업 중 바늘한땀협동조합 판매 우수상 수상

성과 확산 지원

-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T/F 5회 진행
- 마을기업 활성화 토론회 1회 실시
-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홍보책자 제작

지원 효과

-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지정까지 추진
- 기 설립된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액의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당면한 경영문제 해결에 기여
- 서울-전국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 장터 운영 및 문화공연 진행

2017년

기획 지원(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형 기획사업의 시작)

- 서울시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지원사업
- 마을복지, 도시재생, 교육(혁신지구),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 4개 영역과 연계하여 단발성·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내 파급력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모델화가 가능한 사업 지원

경영 지원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공모 및 관리
 - 행정안전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2개소 선정·지원
 - 레벨업 지원사업(22개) - SNS 및 홈페이지 구축 관리,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통합적 경영지원 체계 구축
 - 레벨업 2.0 지원사업(11개) - 마케팅(온라인홍보(대행), 판촉물 제작 등), 민간 판로(온라인쇼핑몰 입점 대행 및 전략 제시 등) 지원
 - 홍보디자인 지원사업(9개) - 리플릿, 브로슈어 신규 및 추가 제작 지원

지정 지원 예비주체 발굴

- 신규주체 발굴 육성
- 예비마을기업 지역밀착 지원사업 진행(3개 자치구 선정 - 강동, 관악, 노원)
- 마을기업 주체들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준비도가 높은 자치구를 선정하여 발굴 사업 지원
- 사업비 지원 관련 교육/상담/실사 진행 : 40팀 188명 교육, 26팀 현장 실사

일상 지원

- 일상모니터링 및 경영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마을기업 지원 총 64개 기업, 101건

성과 확산 지원

- 서울시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사업
 - 대도시형에 맞는 마을기업 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굴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사업 추진
 - 서울시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연구. 마을기업 코칭프로그램, 서울시 정책을 연계한 사업모델 확대 등 제안
- 마을기업 정책토론회
 - 서울 마을기업의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2017 서울형 마을기업 자립 지원방안 정책토론회(9/19, 서울 혁신파크)' 개최
 - 마을기업 당사자 및 연합회, 지원기관, 행정 등 관계자 62명 참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 대안 공동 모색

지원 효과

- 레벨업과 일상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에 맞는 적정 지원사업 설계 및 실행인력(청년 등) 지원으로 마을기업 지속가능성 증대
- 마을기업 전수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2015년 161명 대비 127% 증가(365명), 평균매출액은 160,000,000원으로 전년 대비 9.8% 상승

2018년

기획 지원

- 지역관계망 확장 지원(17년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사업 후속)
 - 지역의제에 기반 마을기업 신성장 지원사업 공모 및 관리
 - 사업 공모 및 7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
 - 수행기관인 당사자조직이 마을기업의 운영원리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현장 모니터링 및 수시 상담, 회계지원, 참여기업 멘토링 및 컨설팅 수행, 중간보고회 및 결과공유간담회 진행
- 돌봄 협업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 및 1개 기업 선정 지원
- 우리마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및 3개 기업 선정 지원

경영 지원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공모 및 관리
 - 행정안전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서울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2개소 선정·지원
 - 레벨업 지원사업(22개) - SNS 및 홈페이지 구축 관리,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통합적 경영지원체계 구축
 - 레벨업 2.0 지원사업(11개) - 마케팅(온라인홍보(대행), 판촉물 제작 등), 민간 판로(온라인쇼핑몰 입점대행 및 전략 제시 등) 지원
 - 홍보디자인 지원사업(9개) - 리플릿, 브로슈어 신규 및 추가 제작 지원

지정 지원 예비주체 발굴

- 지역기반 마을기업 발굴, 지원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설립 지원 : 신규(6개), 2년차(5개), 예비(3개), 우수(1개)
 - 마을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추진 : 고용노동부 사업개발비 설명회(1회), 설립 후 직무능력 교육(2회), 자치구 담당자 교육(2회), 2년차 전문교육(7회)
 - 2019년 신규/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기관 교육 및 현지실사(15개)

일상 지원

- 마을기업 일상 지원
 - 개별 마을기업에 대한 일상 모니터링과 진단
 - 지원 연속성 유지
 - 마을기업 방문(35개), 회계 지원(13개)
 -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지원, 교육 지원, 비예산 지원사업 등 센터 사업 연계

성과 확산 지원

- 행안부 각종 행사 참여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4개 마을기업 참여 지원 등), 마을기업의 날, 육성사업시행지침 개정 추진단 및 워크숍 등

지원 효과

- 당사자 조직이 지원사업의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마을기업과 밀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 정책 등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계기 마련
- 마을기업 현장의 다양한 이슈(인력·예산 부족 등)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현안을 청년 뉴딜 활동가(인력) 지원, 실행 사업비(예산)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해결하고, 향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초 매뉴얼 마련
- 지역 주민의 필요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공동의 기획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의 발견과 함께 지역 관계망 활성화

**연도별 마을기업 지원사업 주요 실적****2016년**

- 상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6회 진행(1,028명 참여)
-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4회 진행
- 신규 마을기업 5개, 재지정 5개 선정
- 마을기업 예비주체 스타트업/밀착지원 지원사업 13팀 지원
-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 총 129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회 이상
 - 마을기업팀의 방문컨설팅을 통해 파악된 해당 마을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3개, 레벨업 5개, 홍보사업 6개 기업들에게 지원 사업과 연계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컨소시엄 2개 : 마을기업 7개 참여/개발 기업 지원 : 16개 마을기업 참여)
- 전국마을기업박람회 지원(7개 마을기업 참여)
 - 총 매출액은 6,132,000원이며, 이중 바늘한땀협동조합의 경우는 판매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 행자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만유인력팀이 장려상 수상
- 지역밀착 홍보지원사업 추진 : 13개 기업 선정
 - 목화송이의 경우 여대 앞에서 면생리대 만들기 활동을 통해 기업 홍보했으며, 참손길공동체(맑은손)의 경우는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캐리커처를 만들어 명함 등 제작하여 홍보
 - 2016년 마을기업 홍보는 언론홍보 169건, 마을기업 관련 사업 공고 및 안내 169건, 뉴스레터 홍보 29건, 오프라인 홍보 30건으로 집계
- 마을기업 판로 지원 : MD협회를 통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들의 입점 지원 및 상품성 향상 지원, 유통채널에 필요한 절차 지원, 입점 확정 시 상품 론칭 관련 기획 지원 등 전 과정을 1:1로 밀착해 지원

2017년

- 마을기업 설립 전후 교육 42회
- 2017년 마을기업 신규선정 9개, 재지정 7개
- 지역기반 신규주체 실행지원 3개 지역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 27개 기업(홍보마케팅 18, 사업개발 7, 제품서비스개선 1, 회원역량강화 1)
- 마을기업 일상경영 지원 총 101건(컨설팅 19, 법률지원 3, 회계지원 13, 해외연수 8, 공공구매상담 6, 방문상담 18, 일상멘토링 6, 공간지원금 전수조사 28)
- 판로지원 16건
- 서울형 신마을기업 모델 개발 연구사업 1식

2018년

- 사업비 지원 관련 마을기업 발굴
- 신규 마을기업 6개, 2년차 마을기업(재지정) 5개, 예비마을기업 3개(설립 전 교육, 전문교육, 현지실사 등 지원)
-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 금천 민들레워커협동조합 장려상(3,000만 원) 수상
- 2019년 신규/고도화 마을기업 신청 기관 교육 및 현지 실사 15개
 - 설립 후 직무능력교육 2회, 자치구 담당자교육 2회
- 지역의제에 기반한 마을기업 신성장 지원사업 7개 기업 선정 지원
- 돌봄 협업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1개 기업 선정 지원
- 우리마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3개 기업 선정 지원
- 마을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42개 기업 선정 지원
 - 레벨업 지원사업(22개) : SNS 및 홈페이지 구축 관리,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신제품 개발 등
 - 레벨업 2.0 지원사업(11개) : 마케팅(온라인홍보(대행), 판촉물 제작 등), 민간 판로(온라인쇼핑몰 입점 대행 및 전략 제시 등)
 - 홍보디자인 지원사업(9개) : 리플릿, 브로슈어 신규 및 추가 제작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및 인재양성

공공시장 확대 지원

- 신규 사업 제안 및 연계, 기획 매칭,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매칭 지원활동으로 11건 매칭 성사, 총 매칭 실적 101.6억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저조한 공공기관/부서를 대상으로 상품과 기업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제고. 이를 통해 공공구매 기업 편중도와 정보 격차 해소
 - 2019년 누적 매칭 실적 101.6억 중 정보제공을 통해 성사된 구매액 56.6억(구매상담회 매칭 성과 8.1억 포함), 총 매칭 연계 4,918건

민간시장 판로 지원

- 창동 하나로마트 내 서울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방향을 입점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전환하여 매출 활성화
 - 시즌별 행사 및 홍보판촉 강화(총 89회 진행)
- 생협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상시판매장 확대
 - 상시판매장 수 : 16년 6개 → 17년 14개 → 18년 29개 → 19년 31개
- 사회적경제 거점 유통채널 운영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지원
 - JDC면세점 사회적경제 판매장 시범운영 용역사업을 바탕으로 패션잡화 특화 매장으로 운영(연매출 9.4억)
- 민간기업(롯데홈쇼핑) 사회공헌과 연계한 홈쇼핑 채널 입점연계 및 성장촉진형 컨설팅을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사업 진행
- 서울시 사회적경제 유통브랜드 운영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 유통브랜드 전략 수립 기반 마련

컨설팅 및 일상경영 지원

- 사회적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현안 해결형 컨설팅 21건, 성장촉진형 컨설팅 15건, 성장협력형 컨설팅 3건, 멘토링 48건, 컨설팅 실행지원 13건)
- 창업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계실무 등 일상경영 지원(회계 지원 : 51건)
-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부자원 연계(총 3개 기관 : 서울시립대 '찾아가는 회계세무 교육 및 상담' 14건, 사단법인 선 '법률 프로보노' 1건, KT 컨설팅단 '상생 프로그램' 1건)

인재양성(아카데미, 해외연수)

- 서울 사회적경제 2.0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 분야 전문가 양성,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역량강화 및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총 6과정, 610명 참여)
- UN사회적경제TF 등 국제컨퍼런스 참여 서울 사회적경제 추진 성과 확산, 생활 밀착형 주제 관련 전략 연수를 통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개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벤치마킹과 사례조사를 위한 기술연수 지원으로 성장 기반 조성(전략연수 34명, 기술연수 19명 지원)



시민체감형 전략사업 사업연합 규모화 지원

전략모델 사업화 및 규모화 지원

- 전략모델 사업화 및 규모화 지원,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실행 및 표준모델 개발, 도시재생 기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업 · 규모화 촉진

신규사업 모델 개발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적용 방안 개발, 사회적경제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협업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경제 해결방안 제시

전략사업 확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다양한 정책 · 사업연계로 사회적경제 전략모델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단, 도시제조업 협업 활성화 추진단 운영



사회적경제 지속성장 기반 조성

마을기업 활성화

- 지역 기반 주민주도형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순환경제 형성에 일조하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주체 형성
-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의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여, 마을기업 활성화의 계기 마련
-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와 성장 지속 지원

공동작업장 활성화

- 사회혁신 주체들의 영역별 전문성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 업종 · 분야별 공동의 혁신기반,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상암소설박스/마포, 기술혁신랩/종로) 조성 지원

협동기반 조성

-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사업, 지원사업들의 경과를 점검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부문 · 업종 협의회가 스스로 자조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협동화 공모사업 관리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과정 지원

시민홍보 및 소통

- 서울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이해도 및 필요도에 부응하여 사회적경제 포털, 뉴스레터, 온/오프라인 채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대상별로 고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인식 확장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시민 체감 사례 콘텐츠 확산, 언론협력, 캠페인 및 행사 등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공감대 형성 및 지지 기반 확보

사회적경제 기획연구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과제 발굴 및 전략모델 수립을 통한 사회적 경제 규모화 도모



2019 분야별 센터의 지원사업 목표와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실적
판로 지원	공공시장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매칭계약 실적 (누계) 80억 • 구매가능품목 등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확대 100건 이상 • 공공기관 대상 사업제안 및 연계 12건 • 공공구매 유 · 무선 상담 건수 200건 • 공공구매 확대 교육 및 설명회 20회 • 공공구매 상담회 기획 · 운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매칭계약 실적 (누계) 100억 • 구매가능품목 등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확대 4,918건(매칭 금액 56.6억 원) • 공공기관 대상 사업제안 및 연계 12건 • 공공구매 유 · 무선 상담 건수 236건 • 공공구매 확대 교육 및 설명회 24회 • 공공구매 상담회 기획 · 운영 1회
	민간시장 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유통채널(공감마켓정) 25개 기업 입점 • 생협매장(우리동네협동가게) 30개 상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유통채널(공감마켓정) 30개 기업 입점 • 생협 매장(우리동네협동가게) 31개 상시 운영 • JDC면세점 사회경제적 판매장 1개 운영
경영 지원	컨설팅 및 일상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 활용 지원 98건 • 회계지원 및 외부지원연계 5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 활용 지원 100건 • 회계 지원 및 외부지원연계 67건
사회적 경제 전략사업	전략사업 기획 및 규모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 사업모델개발 1건 • 전략업종 성장지원사업 - 모델개발 5건 - 지역상생 연대사업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모델 사업화 및 규모화 지원 10건 • CRC 모델개발 1건, 시범사업 2건 •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 실증사업 5건 • 신규사업 모델개발 6건 • 전략사업 확산 추진단 구성 · 운영 2건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	자치구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네트워크 사업 지원 19회 • 예비특구 현장 지원 6회 • 성과공유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자회의 및 자치구 센터 연대회의 12회 • 자치구 센터장 워크숍 1회 • 자치구 간담회 및 자문회의 4회 •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현장점검 7회 • 예비특구 공동현장점검 6회 • 성과보고서 1식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발굴 및 교육 25개 • 레벨업 지원 25개 • 마을기반 공동기획사업 지원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지원 29개 • 마을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22회 •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10개 • 온라인쇼핑몰(G마켓) 입점 지원 7개 • 마을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22회 • 지역기반 공동기획사업 6개 • 지역기반 전략사업 4개

구분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실적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	공동작업장 조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상암소셜박스) - 프로그램 운영 횟수 135건 - 사경 행사 개최 횟수 16건 - 기타 입주기업네트워킹 73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상암소셜박스) - 프로그램 운영 횟수 140건 - 사경 행사 개최 횟수 20건
	협동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 공간 이용자 수 1,193명 - 프로그램 운영 횟수 1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 공간 이용자 수 992명 - 프로그램 운영 횟수 131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화 공모사업 5건 • 정책거버넌스 지원 (월례회의 외 2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화 지원 5개 • 민관정책협의회 15회 • 숙의예산/F 8회
사회적 경제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심화과정 3개 • 업종/대상 맞춤형과정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대상 맞춤형과정 6개 • 법정무교육과정 1개
	인재양성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연수 19명 • 기술연수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연수 34명 • 기술연수 19명
홍보 및 연구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 유지보수 • 콘텐츠 제작 - 뉴스레터 21회, 홍보콘텐츠 123건 • 전략캠페인 및 일상홍보 - 언론 캠페인, 신년 정책대화, 콜로키움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 유지보수 - 서비스 고도화 / 플랫폼 방문자 16% 증가 • 콘텐츠 제작 - 뉴스레터 20회, 홍보콘텐츠 133건 • 전략캠페인 및 일상홍보 -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 콜로키움 3회
	기획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연구과제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연구과제 5건



2020년 사업 추진 전략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활의제 사업연합 규모화 위한 전략사업 추진 지속
- 8년간의 지원인프라 구축 결과 평가 및 신전략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 부문 · 자치구 지역 협의체 육성 전략 → 업종 · 민간주도 상호부조 기반확충 강화
- 시민수요 및 커뮤니티 관계망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
- 사회적경제 미래세대(청년)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환경 조성

서울시민 생활문제 해결형 의제(업종) 규모화

- 서울시 및 중앙정부 핵심정책과 연계성을 높여, 시의성 높은 전략사업 추진 지원
- 신생기업 창업 및 초기 정착 지원에 집중된 공공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기 기업들의 의제별 플랫폼 구축 등 규모화 지원 강화
- 협업 촉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전문 분야별 인재은행 운영

시민 소비자의 필요 검증된 재화를 보유한 기업 타깃화한 판로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판로확대 위하여 시민수요 높으면서도 상품경쟁력 보유한 사회적경제 기업(재화)을 중심으로 생산관리와 마케팅지원 통합 지원 추진
- 서울 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각화

사회적경제 민간주도의 상호부조 기반 구축 촉진

- 상호부조형 공제기금 · 업종 공유 클러스터 등 연대 · 협력사업 촉진
-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일몰 대비 새로운 지원인프라 구축 모색
- 기술활용 기반 사회적경제 가격절감, 지원방안 다각화 및 문제해결력 제고
- 국제협력 · 교류망을 이용한 차세대 사회적경제 청년리더 양성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단, 개)

구분	2019년도		2020년 목표
	목표	실적	
신규 발굴 및 교육	22	51	30
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 지원	8	10	10
레벨업 지원	25	39	-
사업력 강화 지원	-	-	10
마을기업 성과 확산	-	-	3

사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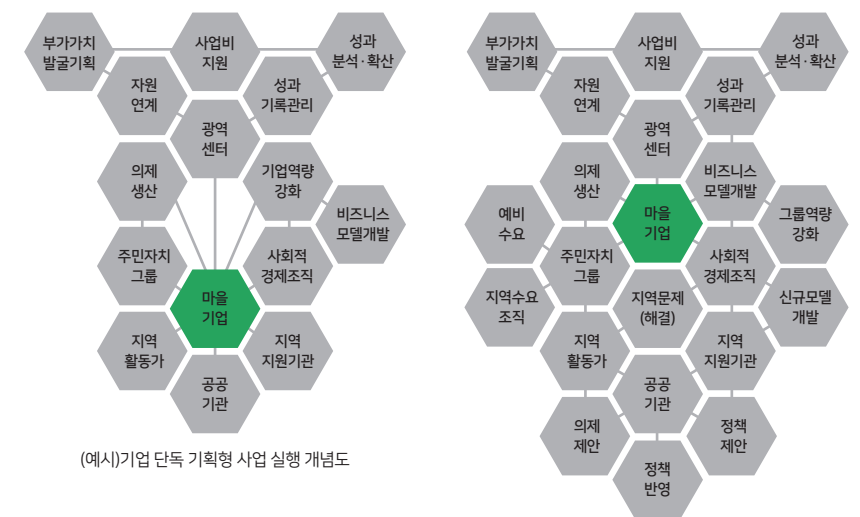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설립 지원
 - 행정안전부 소관 마을기업 설립 지원과 관련한 기본 업무 추진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스타마을기업, 재도약마을기업 등 발굴 및 심사 지원 마을기업 공모사업 홍보, 현지조사 지원 등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한 멘토링 추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마을관계망 연계로 지속가능성 제고
 - 마을기업 정기모니터링 및 행정안전부 업무 협조
- 연 2회 이상 정기모니터링 결과 취합 분석(자체, 행정안전부 및 서울)
- 간담회 및 워크숍 참여, 행정안전부 행사에 참여하는 마을기업 지원 등
- 행정안전부 추진 협력사업(주)이베이크리아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홈플러스 상생마켓 등) 업무 지원

· 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 지원

-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마을기업 정체성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을 확보하도록 기획공모 사업 추진
- 지역의제에 기반해 국책사업 및 서울시정과 연계가 유리한 노인돌봄, 혁신교육 및 마을 방과후교육, 맞벌이 자녀 대상 급·간식사업, 청년 대상 도시생활 문제해결 등 지역자원(사회적경제 기업, 마을공동체, 주민 자치조직, 지역활동가, 지역 NGO, 공공기관 등) 및 '주민의 참여와 관계망 확충을 통해 수요·공급 매칭이 유리한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통해 추진주체를 선정 및 지원
- 마을기업이 주도하는 자치구 내 동종·이종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구성된 사업별 최대 3,000만원, 6개 이상 컨소시엄을 선정·추진(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어린이 마을돌봄, 마을관리 마을기업 모델 구축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기반 비즈니스 영역 중심으로 선정)
- 지역의제를 발굴·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기업 중 지역의 자원과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관계망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최대 1,000만원, 4개 이상의 사업 분야 지원
- 선정 전 사전진단, 선정 후 공동워크숍, 사업과정 중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기업과 공동의 사업 과제와 마을별 과제 도출 및 사업계획 공동 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예시)기업 단독 기획형 사업 실행 개념도

(예시)공동 기획형 사업 실행 개념도

사회적경제 민간주도의 상호부조 기반 구축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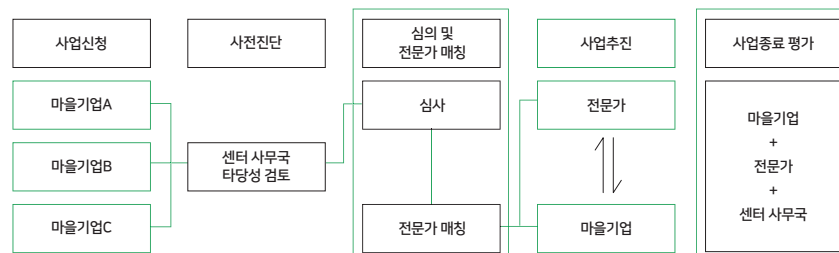
구분	사업력 강화	지역의제기반 기획(단독)	지역의제기반 기획(공동)
목표	지역의제 발굴 역량강화 경영안정성 제고	협업 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	협업 경험 제공, 시너지 창출, 의제 해결 모델 발굴 및 실행
지원대상	운영구조 불안정하고,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마을기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의지가 있는 기업	마을기업이 중심이 된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기간	매월 선정(3월~9월)	3월	3월
지원기간	선정 후 3개월	4~11월	4~11월
지원규모	300만 원, 전문가 지원 / 10개 기업	1,000만 원 / 4개 기업	2,000만 원 / 3개 기업 3,000만 원 / 1개 기업

·사업력 강화 지원

- 서울의 24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관계망을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특히 지역수요에 기초한 창업 및 사업영역이 지역 연계가 가능하도록 신규 주체 발굴 및 기 설립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밀착 지원 체계 구축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경영전문가와 지역의제(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어린이 마을돌봄, 마을관리 마을기업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문가가 직접 지원사업 신청 기업의 멘토가 되어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

(가칭)자문위원단 운영(안)

- 구성 : 5~7인 이내 전문가
홍보·마케팅, 사업계획·개발, 조직관리 등 경영 분야 의제별 전문가, 마을공동체·도시재생 등 지역협력 분야
- 역할 : 지원사업 심의 및 기업 실행자문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제안 등



- 개별 마을기업에 대한 일상 모니터링과 경영이슈 진단을 토대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컨설팅, 판로지원, 교육, 홍보사업 등을 연계하여 경영 안정화 지원

·마을기업(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성과 확산

-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마을기업(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센터가 2015년부터 추진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5년의 성과와 기 설립·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분석을 토대로 마을기업(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을 발굴·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대상 전수조사를 추진,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도시에 적합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육성 방안 도출
- 서울시의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정책 및 성과를 공유하고 대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0년 사업 추진 초기부터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록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성과공유자료 제작 및 배포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추진 시기
마을기업 설명회	· 2020년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절차 및 센터 지원사업 안내 - 대상 :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개인 및 법인 등 - 규모 : 80명 내외	2월
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 지원	① 사업 공모 및 선정 - 대상 : 행안부 육성형 · 자립형 마을기업 및 서울형 마을기업과 이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평균 1,800만 원(1,000만 원~3,000만 원), 10개 소 내외 ②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③ 사업실행 ④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3월 4월 4~11월 8월/12월
사업력 강화 지원	① 사업 공모 및 선정 - 대상 : 행안부 육성형 · 자립형 마을기업 및 서울형 마을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평균 300만 원, 10개 소 내외 ②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③ 사업 실행 ④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3~11월 (격월 1회) 4~9월 4~11월 7~12월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지원	① 2020년 2차년, 3차년, 예비 마을기업 지정 공모 및 전문교육 ② 현장실사 및 서울시 심사 ③ 행안부 심사 및 선정 ④ 설립후 교육 추진	3월 4~5월 6월 7월
	① 2021년 1차년(신규) 마을기업 지정 공모 및 설립 전 교육 ② 현장실사 및 서울시 심사 ③ 행안부 심사	10월 11~12월 '21년 1월

오시는 길

주소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홍제 방향으로 200m 직진 (도보 5분)

버스 마을 은평 02, 04, 07
지선 7720
간선 471, 701, 703, 704, 705, 706,
720, N37
일반 99, 330, 567
직행 9709, 9710
광역 9703, 9709
공항 6012

↑
홍제
방향
로
직진

대조시장, 응암동 방향

불광초등학교 →

불광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번파출소

구기터널 방향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은평, 홍제동
방향
로
직진

↓
입구



서울혁신파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 사회적경제 홍보채널

홈페이지 www.sehub.net
블로그 sehub.blog.me
페이스북 fb.com/Seoulsehub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secenter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goo.gl/xzKSWN>
다시보기 www.sehub.net - 알림마당 - 뉴스레터

마음은 둥그니까
마음은 둥그니까

발행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전화 02-353-3553

팩스 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편집 및 디자인 하토콘텐츠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출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